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경각심

주의 깊게 살피고
조심하는 마음



心 희망찬 마음=
: 마음 심

審 살펴갈 내일!
: 살필 심



深 뜻깊은 오늘+
: 깊을 심

2019
12

Vol. 523



9 772671 930009
ISSN 2671-9304

12

2019.12



'경각심'은 주의 깊게 살피어 경계하는 마음입니다. 평소 주변을 꼼꼼하게 살피고 조심하면 실수나 잘못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 12월, 더 나은 내일을 보내기 위해 부주의하였던 지난날을 돌아보며 반성해야 합니다. 이번 호 월간 <교정>에서 경각심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희망찬 마음 =
좌측 QR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참여 흡
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홈페이지
를 통해 월간
<교정> 참여 코너의 신청, 날말퀴즈
정답 응모, 독자 사연 & 독자 의견 송
부 등이 가능합니다.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교정공무원 문화교양지

교정 2019년 12월호 (통권 523호) 63권 12호
www.corrections.go.kr

발행인 최강주 법무부 교정본부장
인쇄 서울남부교도소
기획디자인 반디컴 02)2272-1190

월간 교정은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 페이스북 주소
www.facebook.com/mojcor

카카오스토리 아이디
mojcor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에서 '법무부 교정본부'를 검색하시면 친구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04
마음을 열다

06
테마를 넘다
경각심은 나를 지키는 성(城)이다

08
사람을 읽다
류태호 태백시장

12
역사를 품다
파별로 이끄는 욕망을 경계할 것
윌리엄 셰익스피어와 비극 <맥베스>

14
추억을 담다
독자에게 들어 보는 '경각심'



- 04
마음을 열다
- 06
테마를 넘다
경각심은 나를 지키는 성(城)이다
- 08
사람을 읽다
류태호 태백시장
- 12
역사를 품다
파별로 이끄는 욕망을 경계할 것
윌리엄 셰익스피어와 비극 <맥베스>
- 14
추억을 담다
독자에게 들어 보는 '경각심'

深 入

뜻깊은 오늘 +

16
교정은 행복을 싣고
행복과 위로가 충만하였던 2019년,
선물 같았던 한 해를 돌아보다

22
영화 같은 하루
청춘을 바친 30년의 교정공무원 생활에
늘 함께했던 동료이자 친구
(충주구치소 교정관 류일열, 청주교도소 교정관 오희순)

26
일상 상담소
티 나지 않게 낯가리는 방법

28
마음 나침반
잘못한 행동을 반성하며 주의하고 있나요?

30
시간을 달리는 교정
발전된 교정행정이 국민에게 달기를

32
여행 따라 잉글리쉬
캠핑카 타고 떠나는 트레킹 여행, 뉴질랜드 남섬
+ 면세점에서 필요한 영어 표현

34
신조어백과
훈바비언 & 절알

36
글로벌 핫클릭
호주, 축산 농가와 수용자 상생
수용자의 양 키우기 프로그램 진행 외



宿 在

살펴갈 내일 !

38
여민 교정
군산교도소 2019 사랑애 콘서트

42
HEADLINE
제57회 한국교정학회·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추계 공동 학술 대회

44
교정 희망의 백일장 I
새 삶의 용기를 심어 주는 직업훈련

48
교정 희망의 백일장 II
형님의 명복을 빌며 용서를 구합니다

50
교정을 말하다
가석방제도의 운영 현황과 발전 방향(下)

56
NEWS
본부 소식 & 일선기관 소식

63
모범공무원 소개

64
국민이 전하다
이웃에게 따뜻한 연말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5
낱말퀴즈

66
독자의 소리

“거만은 파멸의 꽃을 피우니
열매 맺는 가을이 오면
그칠길 없는 눈물을 거두게 된다.”

– 올리버 에번스(미국의 발명가) –

한 사람의 아름다운 성장 뒤에는 스스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가꿀 줄 아는 사람은 건강한 삶의 자세로 주변 사람을 환히 밝혀 줍니다. 그러나 자존감과 거만함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만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과도하게 해석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그런 삶의 태도나 그런 사람을 가리켜 ‘안하무인(眼下無人)’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곁에 두지만 거만한 사람은 홀로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2019년 12월,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경각심과 반성은 어둠을 밝히는 주의 깊은 시선이라고 합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며 나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생각해 봅시다. 멀어진 사람이 있다면 왜 인연이 끊어졌는지도 고민해 보세요. 혹시 주변 사람들을 거만하게 대했다면 깊이 반성하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다짐해야겠습니다. 다시 노력하면 주변이 밝아져 멀어진 사람이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경각심은 나를 지키는 성(城)이다

“일생에는 기회와 변화가 많다. 그리고 가장 성공했을 때 큰 불행이 닥쳐온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의 말이다. 뒤가 좀 짚찝하다. 기회를 잡아 성공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 행복을 누리는 건 인생의 기쁨이다. 그런데 바로 그때 큰 불행이 닥쳐온다니. 하지만 곰곰이 새기며 읽어 보면 빈정거림이나 저주가 아니라 경계의 의미로 한 말임을 알 수 있다. 가장 성공했을 때 누구나 교만하기 쉽고 그동안의 고생(자신뿐 아니라 주변에서 도와준 많은 사람의)도 잊기 쉽다. 지금까지 쌓아 온 공덕의 긴장이 다 풀어졌을 것이고 그 행복이 무한 지속될 것이라 생각하고 싶을 것이다. 그 순간 무너진다.

나름대로 부지런히 살아온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많은 일이 있었다. 개인의 영역에서도, 사회의 영역에서도 수많은 일을 겪고 살았다. 봉우리처럼 우뚝 솟은 순간도 있고 폭 꺼진 벼랑의 순간도 있었다. 위기나 고통의 시간은 대개 방심했을 때 찾아온다. 매사 긴장하며 살 수는 없다. 긴장에도 좋지 않다. 하지만 시급과 완급을 조절하면서 그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을 때 일과 삶에 집중할 수 있다. 긴장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위해 그리고 나태와 해이에 거리를 두기 위해 필요한 긴장이다. 굳이 긴장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틈틈이 스스로를 내려놓고 놔주는 일 또한 중요한 지혜이며 덕목이다.

경각심이 없으면 잘못을 반복한다. 똑같은 일을 어처구니없이 반복하는 경우를 반추해 보면 대부분 자기 경각이 부족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허물 많은 나로서는 그런 일이 빈번하다. 그럴 때 이제는 나를 타박하지 않는다. 나이 들어 자신에게 관대해져서가 아니라 꾸짖는 것보다 도닥이며 격려해야 할 때도 있어야 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경각심이 굳이 불편한 경고일 까닭은 없다. 그 허물에 너무 마음 쏟지는 말라고, 그런 일은 살다 보면 이따금씩은 겪는 일이라고, 다만 거듭 되풀이되는 것만 피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도닥이는 것 또한 경각심을 돋우는 일이다.

때론 거대 담론의 경각을 깨우는 말도 있다. “인류가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전쟁이 인류를 끝낼 것이다”라는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의 경고가 바로 그런 경우다. 말로는 평화를 외치면서 언제든 전쟁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는 일본이 새겨들어야 할 경각이다. 하지만 그 말도 인류 전체에 대한 경각이기에 앞서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경계다. 수많은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그 갈등이 쌓이고 얹혀서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시간과 공이 많이 든 관계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경각심은 방심하다가 당할 수 있는 재난이나 혀수고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주사 같은 것이다. 한 해를 돌아보면 그 전해에 겪었던 고통이 반복된 것은 대부분 그 경각을 잠시 놓쳤거나 그런 일이 나에게는 생기지 않을 거라는 근거 없는 자만에서 비롯한 것이다.

공자는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늘 자기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 것을 채근하였다. 어떤 제자는 칭찬보다 야단맞는 장면에 더 자주 등장한다. 스승의 눈에 차지 않는 제자일지 모른다. 그러나 공자의 야단은 징벌이 아니라 그가 놓치는 문제를 상기시키는 경각심을 새기는 것이었다. 재주가 뛰어나지만 덕이 부족한 제자에게는 근신과 덕의 수행을 강조하고, 지나치게 의협심이 강한 제자에게는 신중함과 분별을 깨우치라고 반복한다. 『논어』를 그런 관점에서 읽어 보면 이런 가르침이 ‘맞춤형 경각’이라는 걸 쉽게 알아챌 수 있다. 『논어』 밖에서도 그런 모습을 만날 수 있다. 공자의 삶을 비교적 상세하게 담고 있는 『공자가어(孔子家語)』에는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주나라 태조 직후의 사당 정문 안뜰 오른쪽에 바늘로 입을 세 곳 꿰맨 금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 뒷면에 “말을 많이 하지 말지어다. 듣는 이 없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말을 삼가면 복이 저절로 찾아올 것이다”라고 써 있단다. 쓸데없는 말은 해 봐야 좋은 일이 생길 게 없다. 오히려 재앙과 분열만 초래할 뿐이다. 그래서 동상의 입을 세 바늘이나 꿰맨 것이다. 그게 경각이다. 그런데 경각이 꼭 따끔한 말일 건 없다. 그 동상의 눈은 유난히 크고 둥글며 귀는 커다란데, 그건 세상과 사람을 더 넓게 바라보고 남의 말을 더 많이 듣고 살라는 경각이다. 경각이 꼭 경고의 성격이 아니라 권면과 사기의 진작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사마천이 치욕을 감내하면서까지 『사기』를 쓴 것은 후대에 역사의 경각을 잊지 않도록 하려는 소명 때문이었다. 그의 봇 끝에서 재현된 수많은 군주의 이야기와 갖가지 사건을 읽으면서 경각심을 깨우지 못한다면 그 책을 수백 번 읽는다 해도 헛일이다. 사마천이 이 책에서 따로 ‘간신열전’ 등을 다룬 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함으로써 아주 노골적으로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경계하지 않으면 누구나 그리고 언제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확고한 경각심을 깨우치는 것이다.

공자의 제자이며 손자인 증자(曾子)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매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나 자신을 반성해 본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을 도모하면서 충실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친구와 교제하면서 미덥지 않은 적이 있는지, 제자들에게 지식을 전수하면서 완전히 익히지 않은 것을 전하지는 않았는지(吾日三省吾身 : 為人謀而不忠乎 與朋友交而不信乎 傳不習乎).” 하루에 세 번 자신을 돌아본다는 ‘오일삼성(吾日三省)’이란 말은 거기에서 유래하였다. 뛰어난 현철(賢哲)인 증자조차 하루에 세 번 자신을 돌아보았다는 건 그만큼 스스로 경각하지 않으면 언제든 허물어질 수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성찰은 경각의 대전제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경계하는 경각이 올바른 경각의 본질이다.

만족스럽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 열심히 살았다.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로 끌탕을 겪기도 하였다. 한 해의 삶을 차분히 돌아보면서 좋았던 일에 감사하되 교만하지 말고, 힘든 일을 겪은 까닭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짚어 보며 스스로 경각의 시간을 누릴 수 있다면 무엇보다 뜻깊은 연말이 될 것이다.

김경집(金京執)

가톨릭대학교 인간학교육원에서 인간학을 전담해 가르쳤다. 「앞으로 10년, 대한민국 골든타임」, 「책탐」, 「생각의 융합」, 「엄마 인문학」, 「인문학은 밥이다」 등 다수의 책을 집필하였다. 특히 「앞으로 10년, 대한민국 골든타임」은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의 서재’에도 꽂혀 있어 화제가 되었다. 서평집 「책탐」으로는 2010년 한국출판평론상을 받았다.

시민들과 함께한 교정시설 유치, 태백 발전의 청사진을 그리다

류태호 태백시장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에서 유세가 한창이던 2018년 5월, 유독 눈에 띠는 공약이 있었다. 바로 태백시장 후보로 나선 류태호 태백시장의 '교정시설 유치'다. 이것은 지역 발전이라는 원대한 꿈을 뒷받침하는 그의 와일드카드였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훤히 기피 시설이라 생각되는 교정시설이 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였을까. 1년여가 지난 2019년 10월 25일, 태백시가 법무부와 교정시설 신축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궁금증은 더욱 커졌다. 교정시설 유치를 전면에 내걸었고, 이 공약을 성공시킨 류태호 태백시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태백의 발전, 교정시설에서 가능성은 엿보다

태백시는 평균 해발고도가 900m로 지역의 70~80%가 산지다. 우리나라 최초로 석탄이 발견된 도시로서 과거 우리나라의 석탄 산업을 주도하였다. 태백시는 광부들과 그 가족이 찾아오며 활기가 넘치고 호황을 누렸다. 그런데 1980~1990년대에 폐광되면서 태백시의 기반 산업 또한 무너져 버렸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태백시에서 나고, 거의 평생을 태백시에서 살아온 토박이로서 그동안의 변화를 몸소 느꼈다. 그래서 정치에 입문하면서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태백'을 만들고 싶었다.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다른 정치인들도 지역 발전을 위해 관광이나 스포츠, 기업 유치 등의 분야에서 무던히 노력을 해왔죠. 성과도 거두었으나 지역의 근간이 되었던 석탄 산업을 대체할 만한 규모는 아니었어요."

류태호 태백시장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획기적인 방식과 관점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공직자로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라는 오랜 고민 끝에 떠올린 것이 바로 교정시설 유치였다. 먼저 법무부에서 교정시설을 추가로 전립할 계획이 있음을 파악하였다. 그때부터 교정시설에 더 깊이 관심을 가지면서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에 대해 위험 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런데 교정시설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이지 않았

다. 교정시설을 기피하는 시민들의 님비 현상 때문이었다. 이러한 님비 현상 탓에 교정시설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노후화하는 동시에 과밀화되고 있었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태백시에 교정시설 유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 이를 자신의 최우선 공약 사업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적극적인 노력 끝에 취임한 지 1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교정시설 유치에 성공하였다.

'일자리 창출', 교정시설의 긍정적 효과

류태호 태백시장은 교정시설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랬더니 지역 발전 가능성이 보였다. 그는 1,500명 수용 규모의 교정시설이 들어오면 600명의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 세수 증가, 지역 소비 증대 등의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분석하였다. 우선 최소 450명의 교정공무원이 근무하게 되고, 경비나 식당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도 150여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시민들이 태백시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부족 문제 때문"이라며 "일자리가 창출되면 시민들이 태백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주민들도 불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 1,500명 수용 규모의 교정시설을 건축하려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므로 경기가 부양될 것이다. 그리고 민원인이나 교정공무원 가족들이 태백시에서 음식을 먹고 물건을 소비하게

소통과 화합·변화와 성장

새로운 태백

“
태백은 교정시설 유치로
지역 성장이라는 원대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지역 발전의 중추로서
교정시설은 태백과 함께하는
상생 모델이 될 것입니다.
”





되어 세수도 증가된다. 교정시설은 한번 건립되면 30년 이상 유지되므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지역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좀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 강원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하기도 하였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수용자와 교정공무원, 가족 등 최대 2,700여 명의 인구가 증가한다. 연간 수용자 면회는 1만 2,000여 건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교정시설 연간 운영 예산이 200억 원일 때 태백시에 생산 180억 원, 취업 200명, 부가가치 131억 원 등의 경제 유발 효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통계는 류태호 태백시장에게 교정시설과 지역 상생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었다.

시민들이 주도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시민들의 반대에 대한 우려도 있었을 것이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떠들썩하였던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어려움도 있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와 달리 시민들은 교정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나 편견 때문에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선거 당시 지역 시민들은 교정시설 유치 공약의 실현 가능성 이 낮다며 비판하였어요. 태백의 지역 언론에서도 어떻게 교정시설을 유치할지 공방을 벌였죠. 교정시설에 대한 님비 현

상 때문에 반대한 것은 결코 아니에요. 지역 여건이 워낙 어려우니 시민들은 지역을 살리는 일이라면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보려고 해요. 그만큼 절박한 것 같아요.”

언론에 태백시의 이야기가 연일 보도되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정시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태백시가 내놓은 분석 및 통계 자료 등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도 교정시설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다. 곧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교정시설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태백시민들은 교정시설 유치 경쟁에서 태백시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류태호 태백시장을 찾아와 ‘교정시설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만들자고 건의하였다. 2019년 1월 29일 조직이 결성되고 난 후 시민들은 위원회 위원을 모집하였다. 가입 신청을 한 사람만 1,501명이었다.

결성 직후 위원회는 두 달 동안 교정시설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법무부에 제출하였다. 무려 1만 1,676명의 시민이 류태호 태백시장, 위원회와 뜻을 함께하였다.

“선거 때 교정시설을 유치하려는 지역이 있음을 법무부에 알리게 되었고, 시민들이 반대 없이 절실함을 보여 주어 교정시설을 유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교정시설의 긍정성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눈이 생긴 건 아닐까 합니다.”

해발고도 1,000m의 자연 친화·인간 친화 시설

다른 지역의 교정시설을 참관한 경험은 류태호 태백시장에게 교정시설 유치의 꿈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계기였다. 그는 교정시설 유치를 추진하면서 영월교도소와 건립 중인 속초교도소에 방문하였다. 깔끔한 시설과 직원 숙소, 가족 만남의 집 등을 둘러보고 절로 감탄이 나왔다. 미디어에서 보면 넓고 어두운 교정시설이 아니었다. 참관 경험은 태백 교정시설이 어떤 기관이었으면 하는지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최강주 교정본부장을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태백 교정시설에 대한 청사진을 그렸다.

태백 교정시설의 건립 예정지는 매봉산 바로 밑에 있는 곳으로, 해발고도가 약 1,000m에 달한다. 산림으로 둘러싸여 있어 공기가 맑고 여름에도 시원하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태백시 지역의 특성 또한 유치 비결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수용자들이 1년 중 가장 힘들어하는 시기가 여름입니다. 태백은 시원한 기후 덕분에 여름철에도 수용자들이 생활하기 좋습니다. 태백시라면 자연 친화적이고 인간 친화적인 교정시설을 자을 수 있지 않을까요? 태백 교정시설은 그 어디보다 교정이 잘되는 뛰어난 시설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는 태백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 외에 보육이나 교육, 복지 분야에도 두루 정책을 마련하였다. 접근성을 높이

기 위해 ITX나 고속도로 등 고속 교통망을 확충하는 계획도 세웠다. 태백 교정시설 건립이 확정된 후 “이 근처에서 장사를 하고 싶다”며 기대를 표하는 시민도 여럿 만났다. 이러한 시민들의 오랜 꿈을 이루어 주기 위해 류태호 태백시장은 자만을 경계하고 시민들 주변을 살뜰하게 챙길 것이다.

“정말 짧은 시간에 교정시설을 유치하면서 혹시 자만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경각심이 들었습니다. 더 겸손한 자세로 스스로를 낮추어야겠지요. 다시 한번 공직자로서 저의 역할을 되짚어 보고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역을 만드는데 힘쓰겠습니다.”

그는 다양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도시가 성장한다고 믿는다. 온 힘을 모아 교정시설을 유치한 과정을 통해 태백시는 성장 가능성을 갖춘 도시임을 대내외에 증명하였다. 그는 교정시설이 태백시의 공동체 안에서 잘 어우러져 상생하길 바라고 있다. 그리고 태백시가 위기를 혁명하게 극복하고 나아갔으면 한다.

시민들이 잘 살아가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그는 매일 자신의 역할과 목표를 점검한다. 태백시가 잘되었으면, 시민들이 잘 살았으면 하는 그의 소망은 시민들의 절실힘과 적극적인 움직임을 동력으로 삼았다. 한마음으로 교정시설 유치에 힘을 쏟은 류태호 태백시장과 시민들 덕분에 태백시는 지역 발전을 위한 더 큰 날갯짓을 하게 될 것이다.

교정공무원들에게 건네는 응원의 메시지

태백시장으로 생활하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은 농담 삼아 “시장이 참 극한 직업이네요”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교도관분들이 이야기로 극한 직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무 환경이 열악한 데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 할 힘든 속사정도 있으니까요.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교도관으로서의 역할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나름의 소명 의식 덕분일 것입니다. 더 크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교도관분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태백시에 오는 450여 명의 교도관분들이 태백시민과 동떨어진 사람이 아님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교도관분들이 태백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어우러지도록 시장으로서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파멸로 이끄는 욕망을 경계할 것

윌리엄 셰익스피어와 비극 <맥베스>

어떤 이야기는 오랜 세월 반복적으로 읽히며 다양한 재해석을 낳는다. 인류사의 고전으로 꼽히는 수많은 이야기는 다채로운 해석 속에 때로는 본보기가 되고 때로는 거울처럼 오늘을 비춘다. 그런 숱한 이야기 중에 영국이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자랑스러워 마지않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 있다. 형태는 다르지만 욕망으로 인해 마침내 파국을 맞는 이 4개의 이야기는 고전 중의 고전이 되어 마음의 양식으로 되읽하고 있다.

권력을 향한 욕망,
살인을 부르다

- 복수심에 눈이 멀어 왕가를 피로 물들이는 왕자의 이야기 <햄릿>, 어리석은 판단과 광기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리어 왕>, 질투에 사로잡혀 아내를 살해하고 자책감에 죽음을 택하는 <오셀로> 그리고 왕위에 대한 욕망으로 살인을 거듭하다가 파멸하고 마는 <맥베스>.

인류 문학사의 걸작으로 꼽히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은 사실상 파멸에 대한 이야기다. 주인공의 이름을 제목으로 달고 있는 각각의 작품은 자신의 내면을 경계하지 않아 스스로 괴물이 되



고 마침내 파멸하는 사람을 그린다. 그중에서도 <맥베스>는 긴 장간 넘치는 전개와 군더더기 없는 짜임새로 정평이 난 작품으로, 범죄적 욕망에 휘둘리는 남자를 주인공으로 삼았다. 승전을 거두고 돌아오는 길, 맥베스와 뱅코는 황야에서 만난 세 마녀에게 예언을 듣는다. 마녀는 맥베스와 뱅코의 자손이 왕이 될 것이라 전하고, 베님의 숲이 언덕 위로 올라오지 않는 한,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에게는 맥베스가 패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말한다. 한때 충신으로 꼽혔던 맥베스의 내면에서 권

력을 향한 욕망이 꿈틀거린 것은 그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욕망에 불을 붙인 것은 맥베스의 아내였다.

맥베스는 아내의 응원과 부추김, 질책을 받은 후 자신을 찾아온 왕을 살해한다. 다음 순간 죄책감에 사로잡히지만 권력의 달콤함 앞에 죄의식은 무용지물이다. 살인은 계속된다. 목적은 오직 권력. 맥베스는 왕좌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살해한 이들의 망령에 시달리면서도 전장의 동료와 정적 그리고 그 가족 까지 모조리 죽이기를 거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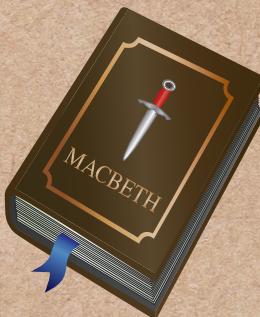
자기합리화의 도구가 된 죄의식

- 살인으로 성취를 이루고 다시 살인으로 성취를 지키는 자의 말로가 밝을 수는 없다. 셰익스피어는 맥베스를 통해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이 어떻게 파멸하는지를 그려낸다. 죄의식과 양심으로 후회를 거듭하지만 손에 쥔 것을 놓을 수 없어 반복적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맥베스. 망령에 시달리고 아내의 자살을 목도함에도 그는 권좌를 내려놓지 못한다.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셰익스피어가 묘사해 낸 주인공 맥베스는 욕망에 이끌린 인간이 스스로를 경계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세밀한 초상과도 같다. 권력의 가장 높은 자리에 달기 위해, 타인을 밟아래 두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에게 죄의식은 자기합리화의 근거일 뿐이다.

저지르고 돌이키고 후회하고 다시 저지르는 맥베스의 내면은 범죄인의 속내와 다르지 않다. 양심이 작동한다 한들 운명을 탓하고 자기 연민을 위해 쓰일 뿐이다. 맥베스는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할 정도로 후회하지만 살인을 멈추고 자신을 반성해 죄의 대가를 치르지는 않는다. 오직 후회만 할 뿐이다. 죄책감을 못 이기고 마침내 자살한 아내와 달리 맥베스는 그저 탄식 한다. “산다는 것은 견고 있는 그림자일 뿐”이라며 생의 덫없음을 한탄하는 그의 모습은 욕망 앞에 끝 간 데 없이 부조리해지는 인간의 단면을 드러낸다.

그런 의미에서 <맥베스>는 인간 욕망에 대한 본질적 고찰인 동시에 내면의 욕망을 그저 반성하는 것만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도 하다. 셰익스피어의 비극적 세계가 오늘날에도 찬사를 받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나를 이끄는 것은
나의 욕망이다

- 혹자는 ‘예언’이라는 말로 맥베스를 부추긴 마녀들과 “남자답지 못하다”고 질책한 그의 아내가 문제였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맥베스의 내면에 왕좌를 향한 열망이 없었다면, 타인의 생명을 해치고서라도 갖고야 말겠다는 욕망을 행동에 옮기지 않았다면, 그저 후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고자 했다면, 그 수많은 죽음을 만든 뒤 마침내 마지막 예언을 직면했을까?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꿔 볼 수 있다. 자신을 경계하지 않는 이의 양심이 행동을 이끌 수 있을까?

맥베스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언에 의지해 자신의 삶을 이끈다. 왕위를 친탈하고, 전우를 살해하고, 잠재적 정적의 가족을 몰살하고, 기어이 자기 자신이 살해당하고 말 상황을 만든다. 헛된 예언에 의지해 삶을 꾸리더니 자신의 내면을 그저 들여다보기만 할 뿐 그 내면에서 비롯된 아수라장을 해결하고자 하지 않는다. “오랜 시간 심연을 들여다보면 심연 또한 그대를 들여다보리니”라는 니체의 조언은 내면의 괴물을 경계하고 주의하라는 이야기였을 텐데, 욕망의 질주에 몸을 실은 맥베스는 자신의 내면 대신 주변만을 경계하고 운명을 탓하기에 바빴다. 베님의 숲을 움직이고 여자의 배에서 나오지 않은 자에 의해 살해당할 위기를 자초한 것은 다름 아닌 맥베스의 욕망이었다. 결국 비극을 완성한 것은 맥베스 자신이었던 셈이다. 그리하여 셰익스피어가 창조한 비극 속에서 맥베스는 자신을 들여다볼 뿐 경계하지 않는 인물의 대표 사례가 되었다.

셰익스피어의 극이 아닌 현실에서, 사람들은 전쟁 같은 일상을 보내며 크고 작은 성취에 일희일비하곤 한다. 그러나 오늘의 성취가 기쁜 만큼, 다음 순간 스스로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 살펴볼 일이다. 나를 이끄는 것은 신년 운세나 사주팔자, 혹은 예언이나 점괘가 아니라 나의 욕망일 테니 말이다.

〈교정〉 독자에게 들어 보는 ‘경각심’

12월호 교정지의 테마는 ‘경각심’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은 언제나 지나온 날을 뒤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잘못된 행동을 반면교사로 삼는 시기입니다. 또 다른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주의 깊은 시선으로 한 해를 마무리한다면 더 밝은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호 주제인 ‘경각심’과 관련하여 독자 여러분의 생각과 에피소드를 들어 보았습니다.

집에서 직장까지 차로 1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적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기초 질서와 기본 안전 규정을 누구보다 먼저 잘 지켜야 한다고 다시 마음먹었습니다. 지금은 그 마음으로 가까운 거리든, 먼 거리든 관계없이 경각심을 가지고 무조건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운전하고 있습니다.

안상현 님(정읍교도소 교사)

초등학생 시절, 아버지의 라이더로 친구들과 등판에서 불장난을 하다 산불을 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마냥 놀라기만 했던 게 아니라 한순간의 장난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불에 관한 경각심을 느껴 이후로는 불을 함부로 다루지 않으며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안성호 님(서울구치소 교사)

군인 시절, 포병 견인곡사포 대대에서 복무하였습니다. 포를 방열(화포를 발사할 수 있도록 위치를 잡는 작업)할 때 부대원들은 늘 모든 과정을 큰 소리로 북명복창하였습니다. 무거운 쇳덩이를 다루기 때문에, 순간의 방심으로 사고와 부상을 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무사고로 전역할 수 있었습니다.

임태규 님(서울구치소 교도)

상당수의 직장인은 휴일이 되면 그저 쉬고 싶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시간만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1년을 돌아보니 휴일을 의미 없이 흘려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제야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이나 원했던 일을 놓쳤다는 경각심이 들었습니다. 새해에는 제가 실천할 수 있는 ‘잘 쉬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알차고 보람찬 새해를 보내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작은 일을 실천하겠습니다!

우도형 님(일반 독자)

저는 2019년에 백석대학교 교정보안학 전공의 전공장이었습니다. 전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전공 행사를 진행할 때 실수하지 않고 사고 없이 잘 끝내고자 항상 주위를 집중하였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1년 동안 최선을 다해 교정보안학을 홍보하고 교도소에 견학을 가는 등 정말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3일 후면 임기가 끝나 2020년 새로운 전공장 후배에게 인수인계를 해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주의를 집중하며 전공장으로 지내 온 제 모습이 교정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 한 단계 성장한 과정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학년이 되면 교정직 합격을 위해 공부하는 일만 남았는데, 경각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여 꼭 교정직에 합격하겠습니다. 그래서 월간 〈교정〉에 글을 실은 김안식 교수님과 가족들을 기쁘게 해 주고 싶습니다. 교정직 파이팅입니다!

홍수빈 님(일반 독자)

날이 가면 갈수록 극도의 이기주의와 금전 만능주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의 사정이나 입장은 자신과 전혀 무관하게 여기지요. 위험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며 심지어 못 본 척하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갈까 봐 두려운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타인에 대한 무관심을 반성하고 경각심을 가진다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타인을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베푼다면 함께하는 사회, 그 이상 더 행복할 수 없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김태완 님(일반 독자)

* 월간 〈교정〉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 호 테마 주제와 관련된 독자분들의 에피소드나 관련 생각을 적어 보내 주세요.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 드립니다. ‘추억을 담다’는 마지막 페이지의 엽서와 메일 그리고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
메일 주소
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



행복과 위로가 충만하였던 2019년, 선물 같았던 한 해를 돌아보다

1년 열두 달 반복되는 것 같은 일상에도 작은 변화가 찾아온다.
교정공무원들에게 '교정은 행복은 싣고' 행사는 엄중하고 긴장된 업무
분위기를 밝랄하게 바꾸어 주는 이벤트다. 열심히 달려온 1년을
되돌아보면 아쉬움과 후회가 남기 마련이건만, '교정은 행복을 싣고'
행사는 돌아보면 볼수록 행복과 위로라는 선물이 뒤따른다.



1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중물

서울남부교도소 봉사 동호회 '나누리'



아름다운 선물에
행복을 실어 보내다 2

포항교도소

3

행복한 민원실을 위해
즐거움을 배달하다

서울구치소 민원과 민원실





5

봄날의 아름다운 향연,
음악으로 마음을 보듬다

영월교도소



4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따스한 마음, 스며드는 행복

창원교도소 '황금돌섬 봉사단'



6

"이 빵 안에 꿈과 사랑을
담아 드립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2019년은 '교정은 행복을 신고' 행사가 매년 발전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 공연을 관람하기도 하고, 교정공무원의 사명을 잊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봉사 활동도 진행하였다.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수용자들의 마음을 교정공무원들이 대신 지역주민에게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도 보냈다. 1년 동안 걸어온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언제나 나의 어려움보다 남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는 교정공무원들이 보인다. 그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시작한 행사에서 사람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염볼 수 있었다. 게임을 하고 상품을 받은 직원들의 얼굴과 똑같이, 봉사하는 직원들도 들뜨고 설레는 표정을 지었다.

7

동료와 함께한 시간이
가장 고마운 선물

울산구치소





8 소소한 일상에 피어난 행복으로 큰 추억을 공유하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9 지역민들과 함께 나눌수록 더 행복해지는 우리들

천안교도소



10 “광 나와도 즐겁고 상품 타면 기쁘고, 뭘 하든 즐거워요”

전주교도소



11 민원인과 민원실 직원들이 함께 누린 행복 현장

수원구치소 민원실



행사가 끝날 때쯤이면 직원들 모두가 많은 걸 깨달았다는 듯이 고마움을 전하였다. 처음의 쑥스러움은 온데간데없이 적극적으로 소감을 말하고, “언제쯤 우리 교정시설에 찾아올까 기다렸어요”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지역주민이나 민원인과 함께할 때는 살뜰히 그들을 챙기는 모습도 보여 주었다. ‘교정은 행복을 싣고’ 행사는 한 기관당 몇 년에 한 번꼴로 진행되지만, 직원들의 봉사는 늘 지역사회로 뻗어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행사에 참여하면서 직원들은 함께하는 시간의 의미를 되새겼다. 그리고 또 다른 이벤트가 아닌 일상에서 만나는 행복과 기쁨을 꿈꾸었다. 날이 갈수록 더 큰 호응과 환호를 선물해 주는 직원들을 보며 행사준비팀에게도 ‘주는 행복’이 다가온 한 해였다.





청춘을 바친 30년의 교정공무원 생활에 늘 함께했던 동료이자 친구

충주구치소 교정관 류일열, 청주교도소 교정관 오희순



왠지 모를 아쉬움이 느껴지는 한 해의 끝자락에도 새해를 맞이할 희망이 생기는 건 내 옆에 든든한 친구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12월 초순의 어느 저녁,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두 친구와의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다. 입사 동기로 시작하여 30년 동안 우정을 나누고 있다는 충주구치소 류일열, 청주교도소 오희순 교정관을 만났다.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의 소중한 인연

‘처음’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에게 설렘과 기대감을 안겨 준다. 첫눈, 첫 만남이 그렇고 첫 직장이 그렇다.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에 있는 한 랩스터 요리 전문점에서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기로 하였다. 약속 장소로 이동하며 어떤 분들일까 마음 속으로 상상하였다. 그런데 주인공들이 먼저 와서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환한 웃음으로 반겨 주는 류일열, 오희순 교정관이 2019년 마지막 ‘영화 같은 하루’의 주인공이다.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한 눈에 보아도 오랜 친구처럼 다정해 보였다. 두 사람은 근무지가 서로 다르고 거리가 멀어서 자주 만나지 못하는데 ‘영화 같은 하루’를 통해 오랜만에 만났다.

류일열, 오희순 교정관은 20대 초반에 교정공무원으로 사회에 첫발을 들여놓은 입사 동기다. 30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각자 근무지는 달라졌지만 여전히 서로 의지하며 고민을 나누는 동료

이자, 동기, 친구로 우정을 쌓아왔다.

1991년 1월 11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던 두 사람은 내년 1월이면 헛수로 꼭 30년 차가 된다. 이렇게나 세월이 흘러갔다니, 처음 만났던 당시를 회상하는 두 사람은 믿기지 않는다면 감탄한다.

“마음은 늘 청축인데, 30년이 금세 흘러간 느낌이에요.”

류일열 교정관이 미소를 띠며 말한다. 오희순 교정관도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두 사람이 교정공무원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법학을 전공한 류일열 교정관은 재학 중에 소년원으로 견학을 간 적이 있다. 이 경험을 계기로 교정 업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교도관의 길을 걷게 되었다. 오희순 교정관은 교도관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이 직업을 택했다고 한다.

교도소라는 특별하고도 폐쇄적인 공간, 그리고 업무 특성상 수용자를 대면하는 일도 많았을 것이다. 두 사람의 신입 시절은



어땠을까.

“입사 후 연수원에서 신입 연수 교육을 받는데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지금은 사복을 입지만 당시에는 ‘기동복’이라고 검은색 제복을 지급받았어요. 그 옷을 입고 무척 낯설었는데도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통합되었지만 1990년대에는 ‘교회직’이라고 수용자들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상담하면서 교회하는 업무가 있었다. 두 사람은 수용자들과 밀접하게 관계하면서 교정교화 업무를 도맡았고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역량을 차근히 쌓아 갔다. 오희순 교정관은 그 시절을 회상하였다.

“당시에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수용자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많지 않아 외부 강사를 부를 여건이 안 되었어요. 이 친구(류일열)가 국어를 굉장히 잘해서 그때 국어를 가르쳤고, 저는 영어를 가르쳤어요. 수용자들이 검정고시를 잘 보도록 열심히 가르치고 열정을 다했었죠. 그 시절이 정말 보람되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랩스터 요리 즐기며 추억 사진 남기다

식전에 나온 따뜻한 수프와 빵, 샐러드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 커다란 접시에 랩스터 요리가 나왔다. 맛음직스러운 랩스터 요리에 두 사람의 눈이 커진다.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랩스터 요리를 먹는 것도 색다른 즐거움이지만 무엇보다 동료이자 친구와 함께하기에 더욱 기쁜 마음이다.

맛있게 식사를 즐기면서 지난 30년간 근무하며 있었던 일,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등 이야기가 끊없이 이어졌다. 사회 초년생 입사 동기와 근무지는 달라도 여전히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친구도 나도 여전히 일하는 여성이자, 아내, 엄마로 살아온 지난 시절은 어찌 보면 두 사람에게 축복이었다. 청춘을 다 바친 30년의 교정공무원 생활을 책으로 펴낸다면 몇 권은 나올 거라는 두 사람은 이처럼 30년 세월의 이야기를 하면 늘 벅차다. 이들에게 이번 ‘영화 같은 하루’는 지난 세월에 대한 보답인 것만 같다.

“한 사람이 안타까운 사유로 범죄를 저지르면 가정이 무참하게 깨지잖아요. 산산이 조각난 가정이 ‘귀휴’라는 제도를 통해 다시 화해하고 원만한 가정이 되었을 때 많은 보람을 느꼈어요. 부부가 감사의 뜻으로 떡을 해웠는데 우리는 받을 수 없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 드리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류일열 교정관은 뿌듯했던 경험을 한 가지 언급하고는 “수용자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노력했던 날들이었다”고 회고하였다. 어쩌면 힘든 날이 더 많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들은 힘들고 고된 기억



보다 보람되고 특별했던 기억이 많은 듯하다. 오랜 시간 수용자 교정교화라는 사명을 다하려면 힘든 점은 훌훌 털어 버릴 줄 알아야 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친구가 있어 서일까. 다시 청춘이던 20대 시절로 돌아간 듯, 두 사람은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랩스터를 먹여 주며 팔짱을 끈다. 이런 날 기념사진이 없으면 서운하기 마련이다. 카메라 앞에 선다는 어색함도 잠시, 이들은 30년 지기와 추억을 남길 생각에 들떴다. 서로에게 느끼는 친근함과 소중함이 사진에 그대로 묻어났다. 그 어느 때보다 편한 표정이 나온 건 가까운 친구와 함께이기 때문이리라. 오희순 교정관은 “랩스터가 빨간색이라 사진이 잘 나오겠다”며 기대감을 표시하였다.

소중한 사람, 가까운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짧게 느껴진다. 거기다 특별한 메뉴인 랩스터까지 곁들여지니 금세 한 시간이 지나갔다.

함께 관람하는 공연, 소원이 성취된다

두 사람의 특별한 시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영화 같은 하루’는 두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이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공연을 함께 관람하고 싶다고 하였다. 저녁 7시, 그 마음을 담아 식당 근처에 있는 대전예술의전당 앞으로 이동하였다. 해가 지고 난 뒤라 대전예술의전당 건물은 더욱 빛나 보였다.

오늘 두 사람이 관람할 공연은 <호두까기 인형>. 해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공연되는 <호두까기 인형>은 세계적으로 명

성이 높은 발레 공연이다. 러시아 작곡가인 차이콥스키의 3대 발레곡 중 하나로, 독일 동화 <호두까기 인형과 생쥐 왕>이 원작이다.

“<호두까기 인형>은 말만 들어 봤지 공연을 보는 것은 처음이에요. 정말 기대가 되네요.”

류일열 교정관의 말에 오희순 교정관도 웃으며 말한다.

“딸이 발레 공연을 무척 좋아해요. 저도 처음 보는 공연이라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다 보고 나서 딸에게 자랑할 거예요.”

공연장으로 향하는 두 사람의 발걸음이 가볍다. 두 사람은 공연장에서 펼쳐질 우아한 몸짓의 발레 공연을 상상하며 멋진 포즈를 취하기도 하였다. 어둑해진 저녁, 일찍 찾아온 추위지만 찬 바람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소중한 벗과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랩스터 요리를 먹고, 멋진 공연도 관람하니 이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 한 주 동안 각자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금요일 저녁 친구와 함께 꿀맛 같은 휴식을 즐긴 두 사람. 이날은 정말 두 사람에게 ‘영화 같은 하루’이자 선물이 되었다.

직원 힐링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거나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행복을 전하고 싶은 분들은 맨 뒤 페이지에 마련된 엑서 또는 우측 QR 코드, 아래 메일을 통해 신청해 주세요.

참여 신청
메일 주소
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



티 나지 않게 낯가리는 방법



어색한 공기를 견딜 수 없을 때

교도관 B 씨는 그동안 낯가림 때문에 많은 고충을 겪었습니다. 사실 성격은 그렇지 않은데 낯가림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하였습니다. “처음 B 교도관을 만났을 때 자꾸 시선을 피하기에 날 정말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B 교도관이 워낙 조용하니까 둘이 밥 먹으러 가기가 좀 불편했지요.” “가끔 보면 화난 사람 같더니까요.”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잘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사실을 듣고 난 B 씨는 낯가림이 여려모로 좋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첫인상은 매우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인사하는 자리나 모임이 있으면 일단 피할 생각부터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한다면 전날부터 잠을 설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친구들은 이런 B 씨에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대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투로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낯가림이 심했던 교도관 B 씨가 가장 긴장하는 순간은 역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머릿속은 하얘지는데 어떻게 해서든 그런 자신의 모습을 티 내고 싶지 않다 보니 갈수록 고민만 쌓여 간다. 특히 신입 수용자를 대할 때 자칫 소심해 보일까 봐 낯가림을 빨리 떨쳐 버리고 싶은데 마음과는 달리 매번 표정이 굳고, 사람들과 눈 맞춤을 피하게 된다. 낯가림을 완벽히 고칠 수는 없어도 최대한 티 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친구들 말처럼 누구를 만나든 아무렇지 않게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낯선 사람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기까지 그 어색한 공기를 견디는 게 너무나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교도관 B 씨가 이 정체 모를 낯가림의 늪에서 헤어 나오기란 정말 힘든 걸까요?

멀치기 어려운 낯선 모든 것

우리 주변에는 교도관 B 씨처럼 낯가림 때문에 여러모로 불편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격 자체가 내성적인 사람부터 친한 사람에게는 허물없이 말을 잘하다가도 낯선 사람만 나타나면 입이 꾹 다물어지는 사람까지. 심지어 예능 프로그램에서 마음껏 끼를 펼치는 연예인들마저도 사실은 낯가림이 심하다고 고백하곤 합니다. 낯가림이 없는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그들에게는 감출 수도, 그렇다고 대놓고 드러내기도 난감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낯가림을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성격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줄여 나가는 방법은 있습니다.

낯가림은 본래 발달심리학 용어에서 나온 말로, 갓난아이가 낯선 사람을 대하기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뜻합니다. 유아기를 거쳐 성인이 되었는데도 낯가림이 남아 있는 이유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낯섦은 존재하니까요. 다만 익숙해지는 정도와 기간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나는 것일 뿐입니다. 낯가림이 없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상대의 반응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크든 작든, 혹은 내 이야기가 재미없거나 공감 가지 않는다고 해도 이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 낯가림이 있는 사람들은 대개 상대의 반응에 지레 겁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바탕에는 잘 보이고 싶다는 욕구가 깔려 있습니다. ‘이런 말을 꺼내도 괜찮을까?’ ‘괜한 말을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오히려 머뭇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과거에 상대의 반응 때문

에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자연스레 움츠리게 되면서 낯가림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낯가림을 없애려면 잘 보이고 싶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하는 시간에 먼저 말을 걸고 다가가는 편이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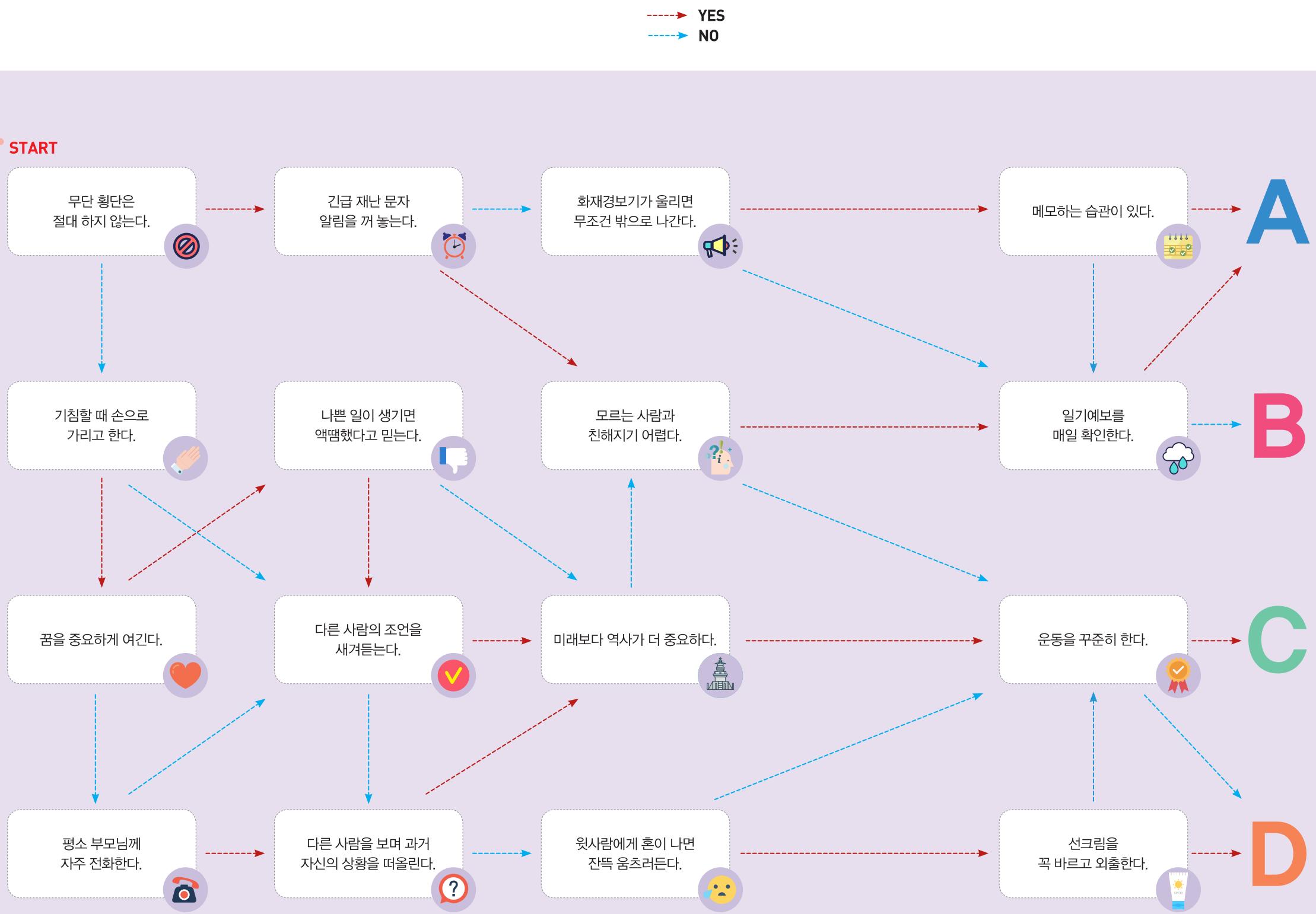
낯가림은 슈퍼마리오처럼

인사를 하고 대화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눈을 맞추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보거나 이리저리 시선을 움직이면 누구나 좋지 않은 인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눈을 제대로 마주 보기 어렵다면 미간이나 인중 등 눈과 가까운 부분을 정해서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을 꺼내기 어렵다면 상대의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는 것만으로도 어색한 분위기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동의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임과 동시에 살짝 미소를 띠거나 “그래요?” “진짜요?” “정말요?” 등 네, 아니요 같은 단답형으로 대화를 끝내는 느낌보다는 이어 갈 수 있는 반응을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낯가림이 심한 사람들은 가깝고 친한 사람들과만 주로 어울린 탓에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주고받을 만한 가벼운 이야기의 패턴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습해 보지 않은 상황이라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지만 같은 상황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이 또한 학습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나는 낯가리는 사람’이라며 다른 사람에게 묻어가기만을 바라지 말고 질문이나 대화 패턴 기술을 하나씩 늘려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날씨 이야기로 시작했다면 다음 상황에서는 영화, 그다음에는 최근 관심 있는 분야 등 주제 또한 넓고 대중적인 것에서부터 좁혀 나가는 것이죠. 해외여행에서 외국 사람과 대화 패턴이 반복되는 상황을 떠올려 보면 쉽습니다. 입에 붙지 않는 영어도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릴 때 많이 하던 게임 속 슈퍼마리오도 처음에는 자꾸 나락으로 떨어지기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기가 발동해 자꾸 반복하다 보니 어느덧 점프력이 상승해 산도 넘고 바다도 건너며 마침내 레벨이 상승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점프에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대로 게임을 꺼버리지 않고 다시 방법을 익혀 게임을 이어 간 것처럼 주어진 미션을 하나하나 깨 나가는 마음으로 ‘낯가림’의 대응 레벨을 올려 간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거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게임 레벨을 올리는 것만큼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요.

잘못한 행동을 반성하며 주의하고 있나요?

사람들은 잠깐의 편함을 추구하거나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그러나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다. 실수하더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되풀이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는 12월, 1년 동안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해 왔는지 점검해 보자.



점검 또 점검으로 같은 실수는 안녕

자칫하면 큰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 당신은 매사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옳다고 여기는 일을 어기지 않으려 노력하고 항상 자세를 가다듬습니다. 한번 실수하면 크게 낙담하고 자신에게 실망하기도하는데요. 1년 동안 타인과 나를 위해 노력해 왔으니 조금은 마음을 편히 먹어도 괜찮습니다. 스스로를 향한 엄격한잣대를 거두면 사고가 유연해져 오히려 실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기꺼이 용서하고 받아들일지도 모릅니다.

후회는 그만, 실수는 두 번까지만 용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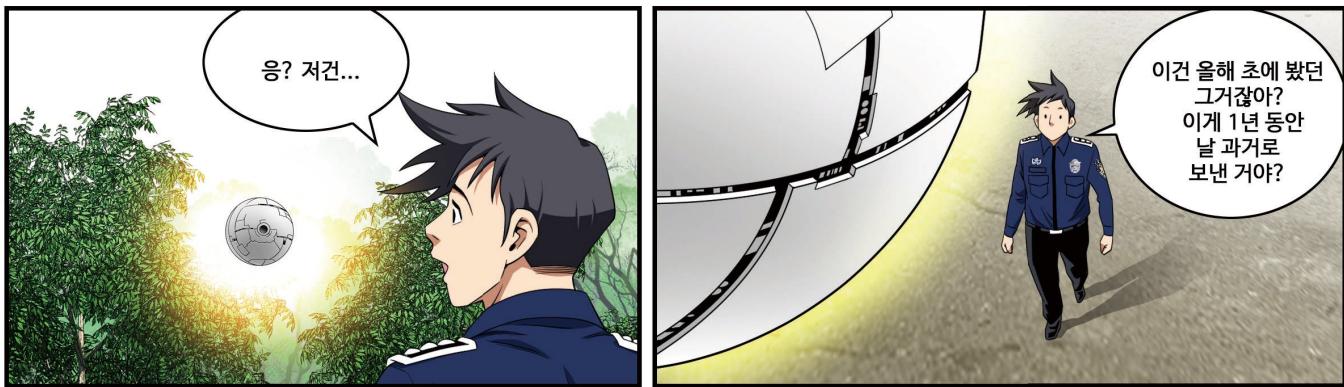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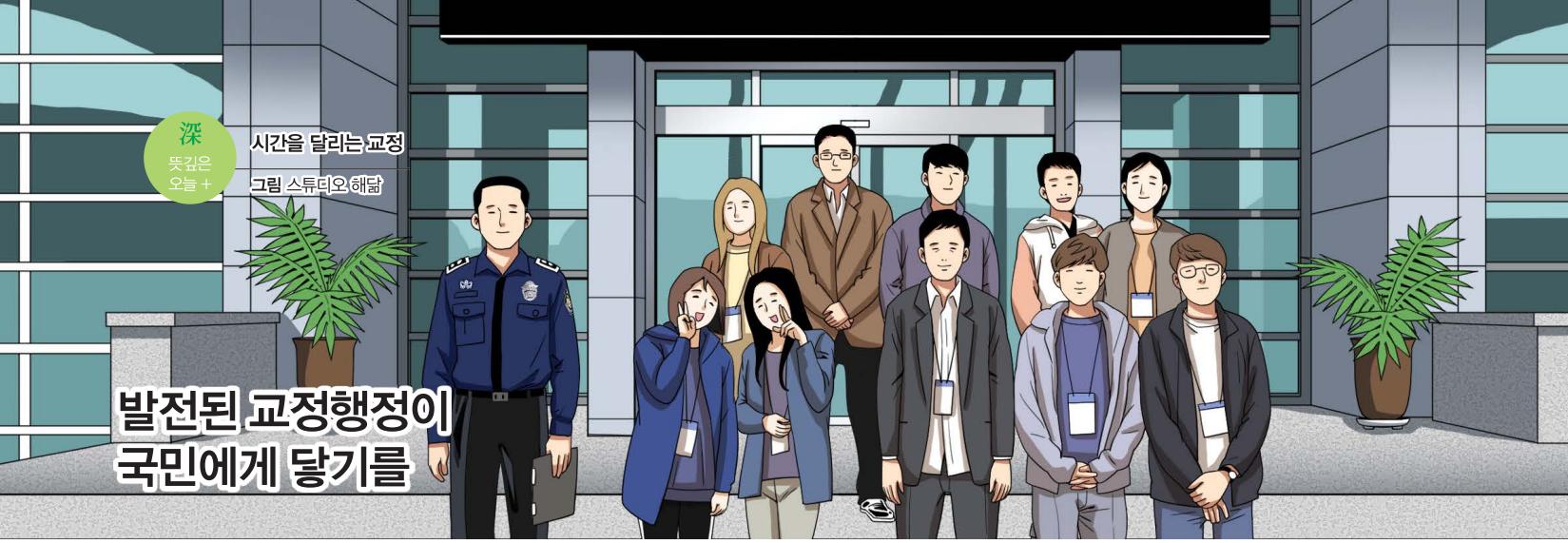
때때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똑같이 후회하지만 자신을 돌아보며 고쳐 나가려 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걸 누구보다 싫어하고, 자신을 스스로 가꾸고 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물론 타인을 위해서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지요. 물론 가끔씩 실수하고, 스스로 타협하며 편하게 지내려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옳지 않은 편함에 곧잘 불편함을 느끼지요. 정직한 마음을 가다듬으면 원하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가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거울이 되는 과거 돌아보기

당신은 곧잘 과거를 회상하며 '그때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습관에는 후회가 아닌 아쉬움이 깃들어 있는데요. 류 시화 시인은 말합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이라고요. 실수를 꼽씹으며 과거에 머물기보다 앞으로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도록 마음을 다잡아 보세요. 그때 왜 그런 선택과 행동을 했는지 자신에 대해 이해한다면 오늘의 일에 후회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앞만 보고 걷다가 옆을 놓치는 덤병이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고 앞만 보고 달리는 타입이네요. 평소에 덤벙댄다는 말을 많이 들을 정도로 조심성도 부족합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실천하는 것은 어렵죠. '이 정도쯤이야' 하는 생각이 자꾸 잘못된 행동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작은 실수와 행동이 나중에 큰 아픔과 후회를 가져옴을 기억하세요. 옆을 살뜰히 챙기고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캠핑카 타고 떠나는 트레킹 여행, 뉴질랜드 남섬 + 면세점에서 필요한 영어 표현



Christchurch

위치 뉴질랜드 남섬

인구 414,000명

면적 1,426 km²

비행시간 13시간 10분 소요

한국과의 시차 +4시간

소개 마오리어로 '길고 긴 구름의 땅'이라는 뜻을 지닌 '아오테아로아(Aotearoa)'라고도 불리는 뉴질랜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하고 있다. 크게 북섬과 남섬으로 나누는데, 학산활동이 활발해 물의 섬으로 알려진 북섬과 달리 남섬은 빙하와 만년설의 비경이 자리한 얼음의 섬이다.

오클랜드, 웰링턴에 이어 뉴질랜드 제3의 도시로 꼽히는 크라이스트처치는 남섬 최대의 도시로, 곳곳에 잘 꾸며진 정원이 조성되어 있어 '가든 시티'라고 알려져 있다. 뉴질랜드가 얼마나 청정한 자연을 기진 나리인지는 750여 개의 크고 작은 공원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금세 알 수 있다.

마치 유럽의 작은 도시를 옮겨 놓은 듯 아기자기한 느낌을 풍기는 크라이스트처치는 뉴질랜드 남섬 여행의 시작점이 된다. 전형적인 영국풍으로 지은 주택과 공원이 어우러진 도시에서 살짝만 벗어나면 드넓은 초원과 다양한 동식물을 마주할 수 있는데, 향유고래에서부터 물개, 블루 펭귄, 바다사자 등 마치 자연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을 보는 것과 같은 촉각에 빠진 정도다. 뉴질랜드 남섬에서는 짙은 녹음이 우거진 정원은 물론 만년설이 덮인 고산과 빙하, 호수에 이르기까지 청정한 원시의 대자연을 다채롭게 감상할 수 있다.



보타닉가든

크라이스트처치에서 가장 큰 공원 헤글리파크에 자리한 보타닉가든에서는 뉴질랜드에서도 쉽게 보기 어려운 여러 식물을 만날 수 있다. 마치 동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커다란 나무와 이국적인 분수대, 가지각색의 정원이 펼쳐져 있어 보는 즐거움을 더한다. 가든 중앙에 있는 장미 정원에는 250여 종 이상의 장미가, 허브 정원에서는 식재료 및 약재로 사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허브가 자란다. 이 외에도 바위 정원, 상록 관목 정원 등의 색다른 정원을 만끽할 수 있다.



테카포 호수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마운트 쿠로 가는 도중에 만날 수 있는 빙하 호수로, 청명한 에메랄드빛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호수 뒷지 않게 그림 같은 풍경을 자랑하는 테카포 호수 마을에는 '선한 목자의 교회'라는 명소가 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작은 창을 통해 바라보는 마운트 쿠의 경관이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멀지 않은 마운트 존 천문대에서 쓸어지는 빛나는 별들을 관찰하는 것 또한 더없이 황홀한 경험이 될 것이다.



카이코우라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카이코우라는 작은 어촌 마을이다. 그런데 이 작은 마을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게 하는 것이 있다. 바로 특별한 해양 동물들을 만나는 경험이다. 카이코우라에서는 향유고래와 물개, 돌고래, 앨버트로스 등을 가까이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이 해양 동물들은 사람들 곁을 지나다니며 사진을 찍고 구경을 해도 놀라는 기색 없이泰연하게 낮잠을 즐기거나 포즈를 취한다. 그야 말로 뉴질랜드 대자연의 신비로움을 몸소 느낄 수 있다.



마운트 쿠

해발 3,754m의 마운트 쿠은 1년 내내 만년설로 덮여 있는 뉴질랜드 최고봉이다. 높은 봉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파란 하늘과 투명한 빛을 내는 호수가 어우러져 맑고 깨끗한 뉴질랜드 자연을 제대로 만끽 할 수 있다. 후커 밸리 트랙(Hooker Valley Track)은 마운트 쿠 국립공원을 둘러볼 수 있는 비교적 쉬운 하이킹 코스로, 초보자도 왕복 10km를 3시간 정도면 완주할 수 있다. 대부분 평坦하지만 중간중간 바윗길과 출렁다리가 나타나 지루하지 않게 트래킹을 즐길 수 있다.



영어회화 표현

Which floor is the duty-free shop?

면세점은 몇 층이예요?

Where do they sell watches?

시계 매장은 어디예요?

I'm looking for perfume.

향수를 찾고 있어요.

Do you have samples for testing?

테스트할 수 있는 샘플이 있어요?

Could you show me some other items?

다른 것 좀 보여 주시겠어요?

Can I carry it on board?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있어요?

혼자 밥을 먹는 사람 (혼바비언)

&
잘 아는 사람
(잘알)

신조어 ‘혼바비언’과 ‘잘알’ 알아보기



혼바비언



용어 해석

‘혼자’와 ‘밥’이라는 글자에 영어 접미사인 ‘-ian’을 붙여 만든 단어로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코미디언이 코미디를 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혼바비언과 비슷한 말로 ‘혼밥러’ ‘혼밥족’ 등이 있다. 이미 대상을 가리키는 단어가 존재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혼자 밥을 먹는 사람, 혼자 밥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또 다른 단어가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용어 진단

2018년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중은 전체의 29.3%를 차지한다. 1인 가구 수만 해도 584만 8,500여 가구다. 1990년에는 9%에 불과하였던 1인 가구 비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1인 가구를 위한 오피스텔이나 상품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1인 문화’가 확산되면서 식당의 인테리어나 메뉴도 바뀌었다. 사람들의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가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너도 나도 1인 가구를 끌어들이기 위해 1인식을 마련하고 1인분도 주문 가능한 메뉴를 개발하였다.

혼자사는 2030세대는 혼자 밥을 먹으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 피로’를 내려놓는다.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식당에 들어가 주문한다. 이들은 당당하게 스스로를 혼밥러와 혼밥족으로 칭하며 혼자 밥 먹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는 언어에도 반영되어 혼바비언이라는 또 다른 단어가 생겨나는데 영향을 미쳤다. 1인 가구를 가리키는 단어는 앞으로도 변형을 거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릴 것이다.

신조어는 그 시대의 젊은 세대가 만들어 낸다. 그렇다면 신조어는 왜 생겨나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기존에 있는 단어 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회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일 것이다. 전에 없던 현상이 나타날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가 바로 2030세대이고, 그들은 기존 세대와는 달리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이를 표현하기 원한다. 이번 호에서 알아볼 단어 역시 젊은 세대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가성세대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표현이니 그 뜻을 알아보고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용어 해석

어떤 대상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 또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잘알’은 주로 접미사 역할을 하며, 앞에 나온 대상 또한 줄여 쓰는 게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게임을 잘 알면 ‘겜잘알’, 축구 경기 규칙과 방식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축잘알’ 등으로 부르는 식이다. 이와 반대되는 말로는 ‘알못’ ‘잘알못’이 있으며 ‘겜알못(겜잘알못)’ ‘축잘알못(축잘알못)’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가 용어 진단

‘별걸 다 줄인다’를 줄인 신조어로 ‘별다줄’이라는 단어가 있다. 실제로 10대와 2030세대는 줄이지 않고 말하는 게 없을 정도다. 심지어 ‘길막 하지 마’는 원래의 ‘길 막지 마’라는 말보다 길이가 더 긴 말임에도 줄임말처럼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비추어 볼 때 정말로 별의별 말을 다 줄여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줄임말은 자신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더 빠르고 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로 든 ‘길막 하지 마’의 경우에 상대방에게 좀 더 강하게 비키라고 말하는 느낌이 든다.

겜잘알, 축잘알도 게임을 잘 아는 사람이나 축구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의미가 전달된다. 특히 줄임말인 잘알이 접미사로서 무수한 단어와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활용 범위가 넓은 단어일수록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쓰인다. 신조어 잘알과 그의 반의어인 알못이 널리 쓰이는 이유다.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을 ‘~잘알’이라고 표현하며 드러내기도 한다.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분야가 제각각인 만큼 앞으로도 단어는 무궁무진하게 변형될 것이다.

12월 글로벌 핫클릭 뉴스

교정을 유심히 바라보면 이런저런 수많은 사연이 존재한다. 그것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교정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교정>지 '글로벌 핫클릭'에서는 세계 교정 관련 이색 소식을 살펴보며, 그 소식이 담고 있는 의미와 우리나라 교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호주, 축산 농기와 수용자 상생 수용자의 양 키우기 프로그램 진행

호주의 어느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이 양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축산 업자 출신의 한 교도관이 가족을 잃은 양들을 돌보면서 시작되었다. 교도소에서 굶주린 새끼 양들을 돌보고 몇 주 뒤 건강해지면 다시 농가로 돌려보낸다. 수용자들은 새끼 양에게 젖도 먹이고 우리도 만들어 주면서 목장 일을 배우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마을 주민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일손이 부족한 축산 농기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극심한 가뭄과 폭염 때문에 목초지가 다 말라 버려 새끼 양에게 일일이 젖을 주어야 했는데, 수용자들이 일손을 덜어 준 셈이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 수용자는 “새끼 양을 돌보면서 이전까지는 미처 몰랐던 나 자신을 알아가고 있다. 마음 씽씽이도 넓어졌다”며 소감을 전하였다.



필리핀, 수용자 46명 자물쇠 부수고 집단 탈출

필리핀 중부 팔라완주 푸에르토 프린세사시에 있는 이와히고 교도소에서 수용자 46명이 운동장 자물쇠를 부수고 달아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중에서 8명은 스스로 복귀하였고, 나머지 38명은 교정 당국이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달아난 이들은 모두 모범수 감형법으로 조기 석방되었다가 9월에 스스로 복귀한 수용자들이다.

이들이 조기 석방 이후 교도소로 다시 복귀한 이유는 감형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당시 강간 살인, 마약 밀매 등을 저질러 감형 대상이 아닌 1,914명도 조기 석방되었다. 사실이 드러난 후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자수하라고 경고하자 조기 석방 인원보다 300여 명 많은 2,221명이 스스로 복귀하였다. 교정 당국은 원래대로 가석방 또는 사면받은 이들도 자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탈출극이 이와 관련되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영국, 소아성애증 수용자 1년 만에 숨진 채로 발견

영국의 소아성애자 자데드 페리가 수많은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수용된 지 1년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자데드 페리는 종교적으로 엄격한 영국 가정에서 생활하며 어려서부터 성인 비디오를 보기 시작하였다. 성인이 된 후에도 이 같은 성향을 보인 페리는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총 10건의 성추행 및 성폭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중에는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도 포함되어 있어 영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후 페리는 1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1월부터 영국 웨일스에 위치한 한 교도소에 수용되었다. 페리는 수용생활을 하는 데 건강상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최근 교도소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시민들은 다른 수용자가 페리를 공격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페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교도소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해 사건을 더 조사하기로 하였다.



인도, 최대 규모 티하르 교도소 관광 프로그램 개설 예정

인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티하르 교도소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이 개설될 전망이다. 이는 교도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는 시민들의 자속적인 요청 때문이다. 한립 고엘 티하르 교도소장은 “관광객들이 티하르 교도소에 머물며 인도의 감옥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교도소 측은 관광 프로그램 개설을 위해 델리주 내무 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체험 프로그램은 관광객들이 수용자들과 같은 환경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이다. 수용자들과 같은 옷을 입고 식사를 하며, 청소와 노역도 한다. 휴대폰을 반납해야 하고 수용자들이 따르는 엄격한 규칙도 똑같이 지켜야 한다. 하지만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체험은 특별히 엄선한 모범수들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수용자 자녀를 돋기 위해 모두가 뭉쳤다

군산교도소 2019 사랑애 콘서트



일석이조(一石二鳥). 하나의 돌로 두 마리의 새를 잡는다는 뜻이다. 군산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19 사랑애 콘서트'를 통해 시민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수준 높은 무대를 감상할 수 있었다. 공연 수익금은 수용자 자녀에게 기부한다고 하니 진정한 의미의 일석이조다. 공연과 기부,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군산교도소 기독위원회 회원들은 몇 달간 행사 준비에 매달렸다. 마침내 12월 3일, 군산의 추운 겨울밤을 뜨겁게 달군 공연 현장을 찾았다.



공연도 보고 기부도 하고

"뜻깊은 행사라 섭외 전화를 받자마자 참가를 결정하였어요. 좋은 뜻으로 오시는 관객들에게 특별한 무대를 보여 드리기 위해 더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사회자의 유쾌한 진행과 함께 '2019 사랑애 콘서트'가 시작되었다. 작년에도 참가하였던 가수 한별이 첫 무대를 장식하였다. 아리따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조금 전까지 소란스러웠던 공연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한별은 자연스럽게 관객의 참여까지 이끌어 내며 모두를 하나로 만들었다.

2019 사랑애 콘서트가 열린 곳은 군산예술의전당이다. 매주 인기 가수의 공연과 유명 연극, 뮤지컬을 감상할 수 있는 군산의 문화 중심지다. 무대의 성격에 따라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공연장을 찾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에는 부모님 품에 안긴 갓난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양한 세대가 이곳을 찾았다. 군산에 사는 김선주 씨 가족은 무려 6명의 대가족이 함께 방문하였다.

"이렇게 가족 모두가 함께 볼 수 있는 공연은 드물어요. 수익금을 좋은 곳에 사용한다고 하니 공연도 감상하고 기부도 참여할 수 있어 온 가족이 다 같이 왔어요. 특히 출연진을 본 아이들이 꼭 가고 싶다고 즐랐어요."

젊은 세대에게 인기 있는 비트박스와 랩 공연, 어른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감성적인 노래, 세대를 아우르는 영화음악까지, 알차게 준비된 공연을 보러 온 군산시민들로 1,200석의 콘서트홀은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다.

수용자 자녀에게 나누어 주는 사회의 따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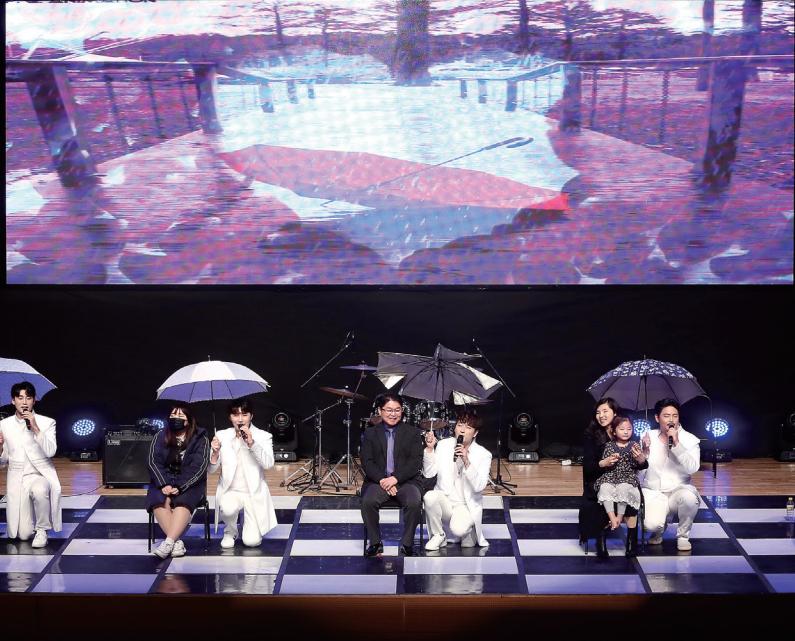
사랑애 콘서트는 부모가 교도소에 수용된 아이들을 돋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2006년 군산교도소 기독위원회의 주도로 시작되어 올해 벌써 13회를 맞이하였다. 부모 중 한 명이

교도소에 수용되면 남은 자녀는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당장의 생활고는 물론이고 가족이 해체되어 아이가 시설로 보내지기도 한다. 한창 예민한 시기의 아이는 이런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어렵다. 결국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키고 범죄의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부모가 수용자라는 이유만으로 2차, 3차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또한 자녀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수용자는 불안한 마음에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군산교도소 직원들과 관계자들이 의기투합하였다. 처음에는 조금씩 회비를 모아 어려운 환경에 놓인 수용자 자녀에게 성금을 전달하는 정도였다. 그러다가 수용자 자녀가 겪는 어려움을 세상에 알리고 잘못된 인식을 변화시켜 보자는 생각에 공연까지 기획하게 되었다. 초창기에는 직원이 준비한 무대를 보여 주는 정도의 작은 행사였지만 지금은 군산에서 가장 큰 무대인 예술의전당에서 콘서트를 진행할 만큼 규모가 커졌다. 게다가 TV에서 볼 수 있는 인기 가수까지 초청하는 번듯한 공연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군산교도소 김영식 소장은 1회부터 공연 기획을 주도하여 지금의 콘서트를 만들어 낸 장본인이다.

"직원들이 바쁜 업무 중에도 수용자 자녀를 돋기 위해 정말 수고를 많이 하였습니다. 기획부터 홍보까지 전부 군산교도소 직원이 주관하느라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좋은 뜻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분이 늘고 있어 큰 힘이 됩니다."

공연을 통해 모인 수익금은 다양한 형태로 전달된다. 먼저 수용자의 동의를 받아 직원이 자녀에게 찾아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한다. 학비가 부족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전달하고, 치료가 필요한 아이는 병원에 데리고 간다. 당장 생



활에 필요한 생필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멘토링도 진행한다. 일자리가 필요한 가정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지속적인 경제활동도 돋는다.

군산교도소의 이런 작은 관심은 수용자 자녀들이 사회의 따뜻함을 느끼고,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정착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

모두가 하나 되어 만든 성공적인 콘서트

“저 분이 목사가 맞는지 볼 때마다 의심됩니다.”

장광우 목사의 공연을 본 사회자의 재치 넘치는 진행에 공연장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모자를 빼딱하게 쓰고 속사포 같은 랩을 하며 커다란 몸으로 절도 있는 춤 동작을 선보인 장광우 목사의 무대에 분위기는 더욱 달아올랐다. 쉬는 시간 없이 2시간 넘게 공연이 이어졌지만 자리를 뜨는 관객은 찾아 보기 힘들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관객들은 더욱 큰 소리로 환호하였고, 가수들은 열정 넘치는 무대로 화답하였다.

이번에는 법무부의 굵직한 행사에 빠지지 않고 초청 공연을 펼치는 군산교도소의 자랑 ‘워라밸’이 무대에 등장하였다. 워라밸 팀은 군산교도소 음악동호회로, 음악에 관심 있는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워라밸 팀이 무대에 올라 드럼, 색소폰 등 다양한 악기 합주를 선보이자 관람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큰 박수와 호응을 보냈다. 오늘 무대에 오른 가수들 모두가 재능 기부로 참여하여 공연의 의미를 더하였다. 콘서트의 하이라이트는 이미 방송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5인조 팝페라 가수 컨템포디보와 2019년 세계 비트박스 대회에서 우승한 마이티가 장식하였다. 컨템포디보가 무대에 오르자 공연장은 터질 듯한 함성으로 가득 찼다. 아름다운

하모니로 노래를 들려줄 때마다 격렬한 박수가 이어졌다. 그 다음으로 10대와 20대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마이티가 다양한 비트박스를 선보이자 관객들은 손을 머리 위로 흔들며 뜨거워진 분위기를 즐겼다. 컨템포디보와 마이티가 속해 있는 오페라디바이스의 권영신 대표는 연말의 바쁜 일정에도 사랑애 콘서트 참가를 흔쾌히 결정하였다.

“매년 12월에는 한 해를 보람차게 마무리하기 위해 다양한 단체에서 재능 기부를 해 왔습니다. 사랑애 콘서트 섭외 연락을 받았을 때 좋은 취지에 공감하며 망설임 없이 참가를 결정하였습니다. 저희의 음악으로 이렇게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마지막 곡은 컨템포디보와 마이티의 합동 무대로 펼쳐졌다. 마이티의 웅장한 비트박스와 컨템포디보의 조화로운 목소리로 영화 <라이언킹> OST ‘Circle of Life’가 울려 퍼지자 놀라움과 탄성이 여기저기서 들렸다. 곡이 끝나기 무섭게 모두가 한마음으로 앙코르를 외쳤다.

끝없이 이어진 앙코르 요청에 사랑애 콘서트는 밤 10시가 훌쩍 넘어서야 마무리되었다. 공연장을 나서는 시민들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하였다.

좋은 공연을 기획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한 군산교도소 직원들, 기쁜 마음으로 재능 기부를 해 준 가수들, 뜻깊은 행사에 선뜻 참여해 준 관객들까지,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낸 사랑은 수용자 자녀가 힘든 현실을 이겨 내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시민에게 교정의 가치와 중요성을 전달하고 수용자의 위기 가족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는 사랑애 콘서트가 앞으로 더욱 많은 아이들에게 세상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 주길 기대한다.



사랑애 콘서트와 함께한 군산교도소 워라밸 음악 동호회와 관람객

MINI INTERVIEW



고감 이명남(워라밸 회장)

올 해 워라밸 팀이 참여한 많은 행사 중에 오늘 무대가 가장 뜻 깊었어요. 팀들이 연습한 실력으로 이런 멋진 공연에 참여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이번 계기로 많은 시민이 힘든 상황에 놓인 수용자 자녀의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연습하여 사랑애 콘서트가 있을 때마다 달려와 힘찬 공연 보여 드리겠습니다.



교위 임재환(워라밸 총무)

오늘 공연을 위해 이선희의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곡을 특별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좋은 취지에 동참하는 분들께 최고의 무대를 보여 주자는 생각에 선생님까지 초빙하였어요. 점심, 저녁 하루에 두 번씩 모여서 정말 열심히 연습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셋던 무대 중 규모가 가장 커서 조금 떨리기도 하였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실수 없이 100% 발휘하였습니다. 저희는 실전에 강합니다!



군산 주민 채현주

수용자 자녀를 돋는 좋은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에 근무하는 지역센터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멋진 공연에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했어요. 아이들은 마이티의 공연을, 선생님들은 컨템포디보 공연을 가장 좋아했어요. 더불어 나눔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 내년에도 열어 주실 거죠?



군산 주민 최재성

지난해에도 사랑애 콘서트를 관람하였어요. 올해도 공연 소식을 듣자마자 표를 구입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규모도 커지고 무대도 다채로워졌네요. 역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가격으로 어디서 이런 멋진 무대를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용자 자녀들이 훈자가 아님을 느끼고 힘을 냈으면 합니다.



군산교도소 교위 김일경

현재 군산교도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년 행사가 열릴 때마다 가족들과 함께 참여하여 작은 힘을 보냅니다. 수용자도 감동을 많이 받아 교화 의지를 다지게 됩니다. 멋진 행사를 기획한 동료들이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워라밸 팀 정말 멋져요!

제57회 한국교정학회·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추계 공동 학술 대회

‘수용자의 검찰청 소환조사 폐지와 의료 처우 개선’ 주제

요즘 이슈가 되는 교정 현안과 관련하여 열띤 토론의 장이 열렸다. 11월 29일, 서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소강당에서 ‘한국교정학회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추계 공동 학술 대회’가 개최된 것이다. 이번 추계 학술 대회는 ‘수용자의 검찰청 소환조사 폐지와 의료 처우 개선’이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수용자 인권향상과 처우개선 등 의미 있는 토론의장이 되기를

한국교정학회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11월 29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소강당에서 공동 학술 대회를 개최하였다. 제57회를 맞이한 이 학술 대회는 교정행정 현안에 대해 교정 전문가와 실무자가 함께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개최되어 왔다. 한국교정학회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함께한 이번 자리에서는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수용자의 검찰청 소환 조사를 폐지하고 수용자 의 의료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였다.

토론회 사회는 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과 윤옥경 교수가 맡았다. 한국교정학회 이영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학술 대회의 의의를 전하였다.

“오늘 전문가 및 교정 실무자들의 토론이 수용자 인권 향상과 처우 개선, 직원 근무 여건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어 법무부 최강주 교정본부장의 축사가 있었다. 최강주 교정본부장은 “한국교정학회 추계 학술 대회의 개최를 축하하며 오늘 이 자리가 더 나은 교정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수용자 검찰청 소환조사 폐지’를 주제로 현안 토론

먼저 ‘수용자 검찰청 소환조사 폐지’를 주제로 현안 토론이 시작되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수용자 검찰청 소환 조사를 폐지하여 교정행정 개혁을 이루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용식 교수와 송영삼 전 광주지방교정청장, 김신호 전 인천일보 논설위원이 토론자로 나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용식 교수는 “수용자의 검찰청 소환 문제에 현재 법률 자체가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현재의 법률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못해 불가능에 가까우며, 검찰의 출석 요구 및 소환에 대한 판례를 없애려면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송영삼 전 청장은 “수용자의 검찰 소환으로 출정을 가야 하는 교정공무원들은 업무가 과다해지고 시간 외 근무가 발생하는 등 교정행정에도 매우 비효율적이라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검찰청과 교정본부, 두 기관의 실무진이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수용자 의료처우 실태 및 관련 형 집행 법령 등 주제 발표

이어진 제1주제 발표는 ‘국제인권법상 수용자 의료 처우 준칙 및 국내법의 개정 방향 연구’였다. 제1주제와 관련하여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허경미 교수가 발표하고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장규원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김윤택 조사관이 토론을 하였다. 허경미 교수는 수용자의 의료 처우에 관한 논의 및 관련 형 집행 법령 등 개괄적인 실태를 발표하였다. 발표를 통해 중증 질환 수용자, 노인 수용자, 정신질환 수

용자 등의 의료 처우 실태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전문 의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선에서 교정공무원이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제인권규범의 수용자 의료 처우 준칙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관련 형집행 법령 개정을 연구하고 효과적인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제2주제는 ‘교정 의료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이었다. 천안교도소 신준식 의료과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경북북부 제3교도소 정만진 의료과장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권수진 부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신준식 의료과장은 우리나라의 교정 의료 현황을 설명하고 실제 환자 사례를 소개하면서 교정 의료의 현실적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이어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환자 계호 인력의 부족 등 교정 의료의 문제점, 중증 환자 형 집행정지의 곤란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하였다.

한국교정학회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추계 학술 대회는 교정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각 주제에 대해 토론을 벌이며 우리나라 교정행정 현안에 심도 있게 다가간 자리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교정행정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를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다. 특히 법령과 관련하여 수용자 의료 처우 문제를 다름으로써 실질적인 과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앞으로도 교정본부와 한국교정학회는 교정행정과 관련된 의미 있는 논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더 나아가 일반 국민의 활발한 참여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새 삶의 용기를 심어 주는 직업훈련

ICT 교육으로 새 삶 시작, 가장 큰 보람



'맨땅에 헤딩'하던 교육 초기

고용노동부에서 직업훈련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만든 기술교육대학교를 졸업한 저는 1999년 청주교도소에 임용되어 현재까지 수형자들에게 정보 통신 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관련 직업훈련을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임용 당시 사회에는 한창 486, 586 등의 컴퓨터가 나왔지만 교도소 내에서 수형자가 컴퓨터를 만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을 해야 했습니다. 실습장을 만들기 위해 벽돌과 시멘트를 나르고, 컴퓨터실의 랜선 공사도 직접 하였습니다. 6개월 후에나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다고 하여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사용하던 중고 컴퓨터를 고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20년 전 수형자 ICT 직업훈련의 시작이었습니다.

첫해 직업훈련 교육을 받는 전체 수형자를 대상으로 정보 기기 운용·기능사 과정을 교육한 이후 현재까지 20년 동안 650여 명의 훈련생을 교육하였으며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려는 동안 저도 수시로 변하는 ICT 기술을 배우기 위해 공학석사,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국내

의 권위 있는 학술지에 총 8편의 논문을 등재하는 등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직장에서는 법무부 정보화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최우수상, 우수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2001년부터는 전국 교정기관 최초로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였는데, ICT 분야는 전국 대회의 경우 40여 명이 넘는 선수가 출전하는 등 다른 직종과 달리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도소 수형자들은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금 14개, 은 5개, 동 2개, 우수 5개를,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금 5개, 은 2개, 동 4개, 장려 2개를 수상하여 교육한 보람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입상 실적을 넘어 앞으로 얼마나 더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직업훈련 교사가 더 좋은 결과를 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엔지니어링 회사 대표가 된 훈련생

직업훈련교사로서 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하면서 기억에 남는 훈련생들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15년 형을 선고받은 소년수 출신의 고○○ 훈련생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소년교도소에 들어와 수용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았습니다. 본인의 소질에 맞는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고 성인수가 되어 청주교도소로 이감되었는데, 그 당시 운영하였던 정보통신공과에 훈련생으로 선발되면서 처음으로 컴퓨터를 접하였고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항상 수동적으로 살아온 자기 자신을 바꿔 보고 싶은 마음과 더불어 옥바라지를 하시는 흘어머니에게 메달을 걸어 드리고 싶다며 기능경기대회에 도전해 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저도 다른 직종의 직업훈련교사들이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보기만 했지 기능경기대회에 ICT 직종이 있는지도 모르던 때였습니다. 소식을 접한 뒤 대회에 참가하는 지역 내 특성화 고등학교에 관련 정보를 얻고자 하였으나 워낙 경쟁이 심한 직종이라 자료는 커녕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학교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자료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전년도 문제를 구해 풀어 볼 수 있었고 고○○ 훈련생은 시작한지 불과 2년 만에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금상을,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입상한 후에도 외국어, ICT 분야의 공부를 계속하여 출소한 후에는 당당히 중견 기업에 취업하였습니다. 그 뒤로 10여 년간 근무한 뒤 지금은 엔지니어링 회사를 창업해 어엿한 대표가 되었습니다.

출소자 출신 강사로 성장

그뿐만 아니라 본인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돌려줄 방법을 고민하기에 제가 능력개발교육원에서 하고 있던 신기술 연수 강사를 추천하여 강의를 맡겼습니다. 출소자가 고등학생과 폴리텍대학 교원을 대상으로 신기술을 강의했다는 것은 그만큼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고○○ 훈련생은 지금까지도 여러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기술 전문 강사로 초빙되어 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기술 전수 및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훈련생이 출소할 때 제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네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빠로, 보통 사람으

로 사는 것을 보는 게 선생님 소원이야." 출소 후 3년이 지난 어느 날 청첩장을 보내더니 이제는 자신을 꼭닮은 아이 사진을 보내 주었습니다. "선생님 소원이 이제 이루어진 것 같아요"라는 말과 함께요. 이제 두 아이의 아빠로, 가장으로 평범한 삶을 사는 모습을 지켜볼 때마다 흐뭇한 미소가 번집니다.

장애를 이겨 낸 훈련생도 기억에 남아

두 번째로 기억에 남는 훈련생은 장애인이었습니다. 2011년 청주교도소에서 디지털콘텐츠공과 직업훈련생으로 선발된 추○○ 훈련생을 처음 만났습니다. 전과 5번이었던 그는 입소 전 스마트폰 관련 사업을 했었으며, 홈페이지 제작 및 IT 관련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그 표정이 너무 간절해 보였습니다. 출소하면 아내와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남편, 아빠가 되고 싶다면 그는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직업훈련에 임하였습니다. 손가락과 무릎에 장애가 있었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도 투철하였습니다. 훈련 도중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고 싶다고 말하는 그에게 "타자도 못 치는 사람이 무슨 대회냐"며 편안을 준 기억이 남니다. 지난가는 말로 한 달 안에 타자를 200타를 치면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3주 만에 정말로 200타를 달성했습니다. 컴퓨터를 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키보드를 종이에 그려서 연습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대회에는 참가해 본 경험이 없어 저 역시 막막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망설이던 중 다행히 대학교 후배가 장애인 대회 심사 경험이 있다기에 대회 관련 자료를 받아 대회를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장애인 대회는 지방대회 1등만 전국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방대회까지 4개월이 남아 있던 상황에서 타자만 칠 줄 아는 훈련생을 가르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훈련에 매진한 결과 지방대회에서 1등을 하였고 2011년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웹마스터 직종에서 월등한 실력으로

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2012년 컴퓨터 수리 직종에서 은상을 수상하는 등 길지 않은 훈련 기간에도 탁월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주말도 없이 준비했던 국가 대표 선발전

무더운 여름날 땀 흘리며 훈련하는 모습에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궁금하여 물어보니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 살고 싶다”며 눈시울을 붉혔던 적도 있습니다.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국제기능올림픽에 나가고 싶다면 제게 대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국제기능올림픽에 나가려는 이유 또한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열심히 살겠다는 의지를 가족에게 보여 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끄러운 아빠였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운 아빠로 살고 싶다는 추○○ 훈련생의 눈물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먼저 국가 대표 선발전에서 1등을 해야만 출전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평일에는 일하고, 주말에 저와 함께 평가전을 준비하였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당시 전국대회에 입상하였던 제자들(2012년 동상, 2014년 금상 수상자)과 함께 추○○ 씨를 국가 대표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국가 대표로 선발된 후에는 두 달 동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가 대표 선수 훈련장에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연습을 하였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자들과 함께 일부 공개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습니다. 심지어 제자 중 한 명은 국가 대표 훈련 숙소에서 합숙까지 하면서 도와주었습니다.

고된 훈련을 이겨내며 노력한 추○○ 씨의 간절한 바람이 통했는지 국제기능올림픽 웹마스터 직종에서 금상과 더불어 대회 MVP로 선정되었습니다. 경기 결과가 나온 늦은 밤, 프랑스에서 걸려 온 전화에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제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었습니다”라고 밀하던 그의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귀국한 후 성대한 환영식을 받기는 했지만 전과자라는

이유로 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훈장을 받지 못한 것은 못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 역시 자신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돌려주고 싶다면 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및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IT 기능 교육을 담당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출소 후 IT 개발 업체를 차리고 온라인 쇼핑몰 개발 및 스마트폰 매장을 운영하다가 현재는 사업 영역을 무역업으로 확장하였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나 미래를 준비하다

세 번째로 기억에 남는 훈련생은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최○○ 훈련생입니다. 2015년에 훈련생으로 입소한 수형자가 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출소 후 웹 관련 업종에서 일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입소 전에 관련 기술 없이 웹 관련 에이전시 사업에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어 제대로 된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2015년 지방기능경기대회가 열리기 석 달 전부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초가 부족하고, 준비 기간 또한 부족해서 훈련 방법을 고민한 끝에 한 달 동안은 기초 과정 습득에 집중했고, 나머지 한 달 동안은 전년도 기출문제를 꼼꼼히 풀어 봤습니다. 공개 과제가 나오는 뒤부터는 하루에 4시간 이상 잔 적이 없을 정도로 노력하여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준비를 위해 사동에 컴퓨터를 설치해 주어 수형자가 주말과 평일 저녁에도 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매일 과제를 내 주고 다음 날 채점하는 방식으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훈련에 매진하여 주어진 과제를 어려워 없이 풀 수 있는 실력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선수들의 수준이 월등하여 입상을 장담할 수 없어 2014년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동료 수형자와 함께 생활하며 실전에 대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대회에서 긴장한 나머지 기량을 펼쳐 보지도 못한 채 끝나고 말았습니다. 대회를 마친 후 도와주신 분들에 대한 미안함과 허탈함에 최○○ 훈련생이 그만두려고 할 때 옆에서 제가 해 주었던 말은 “본인을 우선으로 생각해 봐라”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들은 직무에 충실해야 하는 사람들이지만 수형자에게 그 대회는 출소 후 자신의 인생을 꾸려갈 동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수형자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2016년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입상을 목표로 단순히 전년도 문제를 풀기보다는 출소 후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실무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이는 수형자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한편, IT 관련 직종 기능경기대회 출전 선수들의 실력이 출중하기에 암기 위주의 훈련은 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구한 접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입상하는 것도 중요했기에 이에 대한 대비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치열한 경쟁률 속에서 입상을 하려면 남들과 다른 전략이 필요했기에 2012년도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동상을 받고 출소 후 웹 개발 회사에 근무하는 김○○ 팀장을 한 달에 4번 정도 초빙하여 현장에서 사용하는 신기술과 풀기 힘든 공개 과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출소한 김○○ 팀장은 자신의 휴가까지 사용하며 적극 지원해 주었고, 교도소에서 배운 기술이 사회에 나가서도 유용하다는 것을 알려 주는 등 힘든 훈련에 동기부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의 여름은 유난히 더웠던 데다 사동에 설치된 컴퓨터의 열기와 수형자의 피로가 누적되어 대회를 앞두고 2번이나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고비가 있었지만 다행히 주위의 격려와 본인의 의지로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고 마침내 2016년 9월 5일 서울에서 개최된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이 대회에 총 39명의 선수가 출전하였는데, 최○○ 훈련생은 오랜만에 타는 버스에 적응하기 힘들었는지 대회 첫날부터 구토를 하며 작은 실수를 하는 바람에 모든 직원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절실히 통했는지 다음 날부터는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첫날 17위였던 성적이 마지막 날에는 0.5점 차로 금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첨단 IT 기술도 수형자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본인의 의지로 목표를 달성한 훈련생이 그저 고맙고 대견하

였습니다. 또한 출소 후에도 전국기능경기대회 기간에는 저와 지내면서 출전을 준비하는 다른 수형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알려 주며 대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비록 출전한 수형자가 입장에는 실패했지만 그때 그 수형자는 고마움에 보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지금 다시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 훈련생은 2018년에 출소한 뒤 현재 회사에 취업하여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근 후에는 배운 기술을 활용하여 웹사이트 개발도 병행하며 열심히 사회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 위해선 '인내'와 '끈기' 필요해

프랑스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Marcel Proust)는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말처럼 수형자들을 처벌로만 다스린다면 그들의 사회 복귀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형자 개인의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사회의 범죄란 결국 사회가 일정한 책임을 나누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그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나처럼 해 봐”라고 말하는 사람 곁에서는 아무것도 배울 게 없고 “나와 함께 해 보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만이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훈련생들을 가르치는 대상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비록 힘든 길이지만 그들의 친구이자 조언자, 동반자로서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님의 명복을 빌며 용서를 구합니다

누구에게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 있습니다. 지난날 이렇게 되리라곤 생각조차 해 본 적 없었는데, 순간의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수인이 된 지 1년 4개월가량 흘렀습니다. 상해치사죄로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아 이제는 기결수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분류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신은 누구에게나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준다고 했거늘 그 말이 무색하게 왜 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을 주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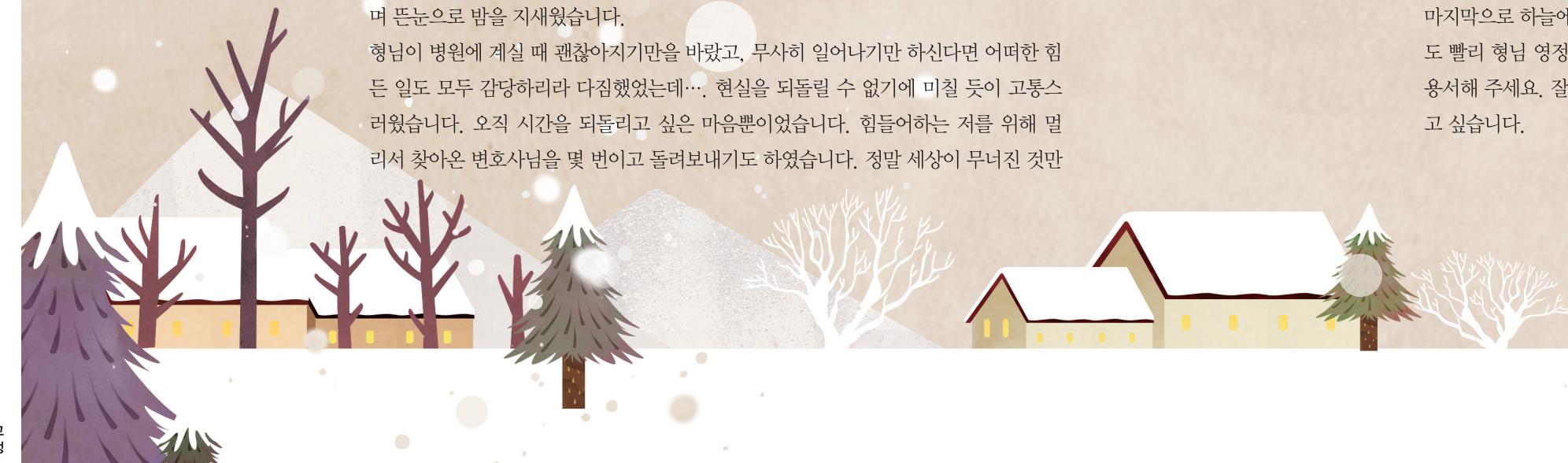
2018년 4월, 함께 일을 하며 15년 정도 알고 지낸 형님과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신 탓인지 한 번도 해 본 적 없는 작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툼은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제 폭행으로 뒤로 넘어진 형님은 그만 뇌출혈을 일으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 형님과는 평소 함께 일하며 앞으로의 사업 방향과 확장 등을 논의하며 서로를 다독이던 사이였는데, 그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술에 취해 기억이 없었던 저는 형님이 뇌출혈로 병원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슬픔과 두려움으로 한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숨이 차올라 물 한 모금조차 넘기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도 갈 수 없었기에 너무나 괴로워 밤새 술을 마시고 형님을 따라 죽을 생각까지 하며 뜯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형님이 병원에 계실 때 괜찮아지기만을 바랐고, 무사히 일어나기만 하신다면 어떠한 힘든 일도 모두 감당하리라 다짐했었는데… 현실을 되돌릴 수 없기에 미칠 듯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오직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힘들어하는 저를 위해 멀리서 찾아온 변호사님을 몇 번이고 돌려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세상이 무너진 것만 같았고 전부 포기하고 싶은 생각만 들었습니다.

‘교정 희망의 백일장 Ⅱ’는 수용자들의 수필로 엮어 나가고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책의 글이나 출소 후 희망적인 삶을 살겠다는 다짐의 글로 채워지기도 합니다. 순간의 실수로 범죄의 길에 들어선 수용자들이 참회하고 교화되어 출소 후 뜻뜻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동이었는지 뒤늦게 깨닫고 나니 비로소 후회가 남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그 시간 동안 형님 가족들은 저보다 몇 배는 더 힘드셨을 테니까요. 조금이라도 일찍 정신을 차리고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을 살피고 해야 했어야 했다는 것을 너무나 늦게 깨달았습니다. 형님께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경찰서에서 만난 형님 가족들께 자초지종을 설명해 드리니 오히려 저에게 괜찮은지 먼저 물어봐 주시고 힘내라고 다독이시며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던 분들이셨는데… 그런 마음을 왜 진작 알아차리지 못하고 혼자만의 생각에 빠졌는지 깊이 반성하며 머리 숙여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형님이 생각날 때마다 가족분들께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 편지를 전해 드릴 수 없지만 닫힌 마음의 문이 언젠가는 열릴 것이라 믿고 저의 진심이 꼭 가족분들께 닿아 편지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결코 돌아킬 수 없는 일이지만 진심으로 스스로를 내려놓고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허락해 주신다면 언젠가 제가 형님의 빈자리를 채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로 처음 어머니 앞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항상 제 걱정을 하고 계실 어머니께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로 복귀하는 날까지 2년 정도 남은 수용 기간 동안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형님! 이제는 용서를 빌고 싶어도 빌 수 없게 되었지만, 하루라도 빨리 형님 영정 앞으로 달려가 무릎 끓고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제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편히 계시길 바랍니다. 보고 싶습니다.



가석방제도의 운영 현황과 발전 방향(下)*

– 회복적 사법을 중심으로 –

목차

- I. 서론
- II. 최근 일본의 가석방제도 논의 상황
- III. 우리나라 가석방제도 운영 현황과 문제점
- IV. 현행 가석방제도 운영의 효율화 방안
- V. 회복적 사법을 통한 가석방제도 발전 방향
- VI. 결론



* 지면 관계상 부득이 '우리나라 가석방제도 운영 현황 통계표' 및 분석 자료는 삭제하였음.

IV. 현행 가석방제도 운영의 효율화 방안

앞의 통계자료에서 살펴본 바 가석방자의 재범률이 형기 종료 출소자에 비해 5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¹⁾ 이러한 결과는 가석방제도가 수형자에 대한 교화개선을 통한 사회 복귀 및 재범 방지라는 교정의 최고 이념을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행 가석방제도 운영 실태는 그 형식적·실질적 요건의 엄격한 적용으로 인하여, 실제 만기출소자 대비 가석방 비율이 매우 저조하고, 가석방자의 높은 형 집행률은 실질적으로 사회적 처우로서 가석방제도가 갖는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라는 명시적 기능뿐만 아니라 교정의 과밀화 해소라는 묵시적 기능까지 그 어떠한 기능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²⁾

* 이 논문은 2019~2020년도 창원대학교 자율연구과제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입니다(2019년 6월 14일 제56회 한국교정학회 축제 공동학술대회 발표 내용과 교정연구 통권 제84호에 실린 논문을 수정·보완하였음).

**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법학박사

▶ 접수일(2019. 8. 21), 심사일(2019. 9. 18), 수정일(2019. 9. 23), 게재확정일(2019. 9. 26)

1) 우리나라 가석방 출소자의 재범률이 약 6~7%인 반면, 일본의 가석방 출소자 재범률은 25~27%로 약 4배 정도 높다. 이러한 이유는 일본의 가석방 출소율이 약 60%로 우리나라보다 2배 높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가석방심사 요건을 완화하여 가석방을 확대하면 가석방 출소자의 재범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설득력 있게 주장될 수 있다. 따라서 가석방을 활성화하면서 또한 가석방 출소자의 재범률도 협약처럼 유지를 수 있도록 보호관찰 강화 등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이희정, 제56회 한국교정학회 축제 공동학술대회 토론 자료집, 2019. 6. 14, 2면).

2) 사회 내 처우로서 가석방제도의 다양한 장점을 효과적으로 살리지 못한다면, 가석방제도는 고소도 내에서 '장단점'으로서 질서유지를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교정 당국의 효과적인 통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보며, 또한 재소자 입장에서도 교도관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위선적인 태도만을 익히게 할 우려도 있다고 본다(한영수, 「행형과 형사법」, 세종출판사, 2000, 55면).

이하에서는 가석방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기존에 논의되었던 주요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현행 가석방제도의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 제5장에서 회복적 사법제도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가석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보자 한다.

1. 가석방심사기관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 확보

현행 가석방심사기관은 성인수형자와 소년수형자를 구별하여 성인수형자는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소년수형자는 '보호관찰위원회'가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³⁾ 오직 수형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석방심사기관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어려 문제점을 발생시킨다.⁴⁾ 특히 가석방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할 것인지 여부도 심사 하여야 하는데 소년수형자는 동일 기관에서 심사하여 문제가 없지만 성인은 보호관찰 조사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하고 가석방 여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성인의 경우 성격이 비슷한 이중 절차를 받게 되어 신속한 절차 진행을 방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⁵⁾ 현행 가석방을 '행정처분'으로 하고 있는 것은 형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신속한 업무 처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 운영은 가석방심사 사항과 보호관찰 심사 사항은 내용에 있어 유사한 면이 있는데도 두 기관이 중복적 심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절차의 지연,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일관적인 행정을 위하여 가석방심사기관을 가석방심사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성인수와 소년수를 통합하여 가석

3) 우리나라에는 중앙에만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각 교도소에는 가석방심사위원회가 폐지되어 있으므로 형식적 분류차우회의에서 1차적인 심사를 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즉 수형자와 가장 밀접한 현장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감독 직원이나 근무 직원 등으로 구성된 1차적 심사 조성이 폐지된 것은 극히 형식적인 서류 중심으로 심사해서 인물 평가를 하겠다는 취지라고 평가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각 지방교정청별 가석방심사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제5장에서 후술).

4) 제2장 통계 자료에서 살펴본 바, 소년법 가석방 출소자의 재범률이 성인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소년법의 가석방은 범죄경색예방국에서 담당하고 있어 자체 예측지표와 같은 객관적 지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소년 수용자의 가석방심사는 1년에 20~30명에 불과(2016년 31명, 2017년 28명, 2018년 24명)하고 소년수용자의 관리를 교정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를 성인수형자와 별도로 실시할 필요가 전혀 있다는 점에서도 가석방심사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실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본다(이희정, 제56회 한국교정학회 축제 공동학술대회 토론 자료집, 2019. 6. 14, 2면).

5) 현행 가석방심사 구조는 가석방 심청기관, 가석방심사기관, 가석방 허가기관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3단계 구조는 가석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소극적 기능은 충실히 할 수 있지만, 가석방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투명한 이유로 가석방이 금지되는 것을 방지하는 적극적 의미로서 가석방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한영수, 「현행 가석방심사체계의 문제점」, 「형사정책」, 제15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3, 170~172면).

방 적격 심사를 하고 보호관찰 부과 여부도 함께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⁶⁾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교정청을 독립 기관화하고 각 지방교정청별로 신하에 전문화된 상설 '지역가석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⁷⁾

2. 수형자의 가석방 신청권 인정을 통한 심사 대상 확대

가석방 신청권은 가석방 요건이 충족된 경우 수형자 스스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한다. 즉 현행 교도소장에게만 인정되고 있는 가석방신청권을 수형자 본인에게도 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⁸⁾ 우리 형법상 가석방은 실질적으로 '잔형집행유예'제도로서 집행유예제도와 똑같은 취지에서 자유형의 개별화되고 탄력적인 집행을 통해 재사회화 및 사회 복귀를 지향하는 형사집행상의 처분이다. 법적으로 규정된 요건의 틀 안에서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수형자의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⁹⁾ 반면, 우리 현법재판소는 "가석방이란 수형자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 '행장이 양호'하고 '재전의 정'이 현저한 자를 그 형의 집행 종료 전에 석방함으로써 수형자에게 무의미한 구금의 연장을 피하고 수형자의 윤리적 자기 형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취해지는 형사정책적 처분이다. '수형자의 개별적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교정기관의 교정정책 혹은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량적 조치이므로, 수형자가 가석방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교정당국에 대하여 가석방을 요구할 주관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교정당국이 그 수형자를 가석방해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가석방은 교도소장의 재량적 판단의

6) 김선태, "가석방제도의 문제점과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교정연구」 제27권 제2호, 2017, 44면; 김준성, 앞의 글, 267면. 다른 의견으로는 성인가석방취소심사를 보호관찰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므로 가석방심사기관과 보호관찰 사안 조사 및 가석방취소기관 모두를 '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 통일하자는'는 견해도 있다(남선모·이인모, "현행 가석방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비교 법적 고찰", 법학연구 제63권, 252면; 박영규, 앞의 글, 20면). 반면 어느 기관은 하나로 일원화하여 실질적 검사가 가능한 기관이면 상관없다는 견해(원혜우, "가석방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50면)도 있고,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을 창설하여 운영자는 견해(강동범, 앞의 글 24면).

7)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가석방심사를 하는 '지방위원회'를 전국 8개소에 고등재판소에 대응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각주 13 참조).

8) 현재 영국은 수형자의 가석방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 수형자에게 가석방 신청권뿐만 아니라 동의권도 인정하는 의견도 있다. 즉 가석방심사기관의 직권 또는 교도소장의 신청에 의한 가석방심사 결과 하기 결정이 난 경우 이러한 결과에 수형자에게 동의하여야 가석방시킬 수 있는 소극적 권리로 의미한다고 한다(정승환·신은영, 앞의 글 228~229면). 가석방은 교정의 이념에 근거한 특별 예방적 목적에서 부과되는 교정정책처분으로서 수형자에게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부여한다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가석방 불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 부여는 긍정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실제 가석방은 행정청 자체에 속하는 처분으로 자랑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행정소송법상의 규정을 들어 행정법상 일반적인 불복 방법으로 다룰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이다(정승환·신은영, 앞의 글 102면; 정종식, "가석방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앞의 글 103면; 정진연, "가석방제도와 관련된 제 문제의 검토", 앞의 글 181면 등).

9) 그러나 우리나라 형사법상 가석방은 또는 가족로 처분은 미치 모범수에게 국가가 내리는 시혜적 조치 즉 가치분으로서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 조치로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다(박희모, 「형사집행절차상 검찰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학회」, 2011, 53~54면).

결과인 적격심사를 거쳐 허가될 경우 비로소 얻게 되는 사실상의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¹⁰⁾

그러나 가석방은 형기 그 자체를 단축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집행 방법을 사회 내 처우로 변경함으로써 수형자의 이익을 위하여 엄격한 시설행형의 구금 상태를 면제하는 제도로서 수형자의 '처우를 받을 권리'에 속하는 것이다. 오늘날 형벌의 내용으로 생각한다면 수형자는 강제적 처우의 대상이 되고 가석방도 처우의 일환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국가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처우는 수형자의 주체성을 인정하여 석방 후 사회에 나가서 직면하게 될 여러 가지 곤란을 극복하는 힘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즉 처우는 형벌 내용이 라기보다 형의 집행 기회에 제공되는 '복지행정적 조치'라고 이해되어야 한다. 즉 가석방제도는 재소자의 '사회에 복귀할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석방은 자유형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국가가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치이며, 수형자는 가석방 신청권 내지 청구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¹¹⁾

특히 현행 형집행법상 수형자에게는 가석방심사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분류처우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방법이 없는 이상 수형자는 가석방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석방 심사 적격 신청 대상자 선정에서 배제되거나 신청되지 아니한 수형자를 위해서는 소년법과 같은 직권에 의한 심사 내지는 수형자의 가석방 신청권이 절실히 필요하다.¹²⁾

3. 가석방 형식적 요건으로 법정기간의 구체화

우리 형법은 가석방의 형식적 요건으로 징역 또는 금고의 자유형 집행 중에 있는 자 중에서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인정될 때, 유기형의 경우에는 형기의 3분의 1을, 무기형의 경우에는 20년을 경과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¹³⁾ 그러나 교정 시설에서의 교정처우 후에 가석방이 이루어지고, 가석방 후 보호관찰에 의한 개선생생과 재범 방지가 시도된다고 할 때, 형사시설에서의 교정처우와 가석방 후의 보호관찰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석방의 시기도 수형자의 개선생생과 재범 방지에 가장 부합하는 시점에서 정해져야 한다고 본다. 이는 결국 가석방

10) 현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한마70; 2006한마298 결정; 93현나2결정

11) 수형자의 사회 복귀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용식, "수형자의 인권", 39~42면 참조.

12) 강동범·이강민, "가석방 허가권을 위한 체계적 정비 방안", 「교정연구」 제27권 제2호, 2017, 17면. 특히 현행 가석방 업무 지침에 의거 가석방 적격심사 유형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제한시켜 제한시켜 관리사법 등 일정한 유형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 선정에서 이에 제외되거나 제한된다. 이러한 점은 이미 평가된 불법 내지 책임을 다시 재차 평가하는 것이며, 가석방은 재법 위험성에 기초한 개별 심사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재법 위험성이 낮더라도 특정범죄 유형에 속하면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자 조차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수형자의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강동범·이강민, 위의 글 16면).

13) 무기형의 가석방 형기 이수 기간이 미국 10년, 일본 10년, 독일 15년으로 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년은 가석방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지나치게 긴 기간이므로, 무기는 15년 유기는 4분의 1을 경과한 후로 개정하여 가석방을 확대하자는 견해가 있다(김준성, "가석방제도의 입법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기천법학」 제6권 제3호,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277면).

~~~~~

의 기능과 목적이 법정기간에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석방의 형식적 조건인 일률적 법정기간에 대하여 그 기간을 자유형을 구분하여 각기 상이한 경과 규정을 두자는 것이다.<sup>14)</sup> 이에 앞에서 살펴본 최근 일본 학계의 주장과 같이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을 기준으로 하여, 3년 미만의 경우 형기의 2분의 1(재입소자의 경우에는 3분의 2)을, 3년 이상의 경우에는 형기의 3분의 2(재입소자의 경우에는 4분의 3)가 경과하여야 가석방이 가능한 것으로 하고, 무기형에 대해서는 유기형의 상한을 단기로, 종신을 장기로 하는 부정기형으로 하되, 가석방을 위한 법정기간을 15년(재입소자의 경우에는 20년)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4. 가석방의 실질적 요건의 객관화

형법 제72조 1항 전단은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의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sup>15)</sup> 이 요건은 수형자에게 남아 있는 형기를 집행하지 않아도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확신을 주기 위함이다.<sup>16)</sup>

수형자 가운데 어떠한 자를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가석방제도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법상 ‘개전의 정’은 ‘뉘우치는 기색이 뚜렷하여 남은 형기를 집행하지 않아도 재범 위험성이 없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sup>17)</sup> 즉 개전의 정의 판단 기준으로 후회하는 마음과 개선생생 의욕 그리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다.<sup>18)</sup>

가석방의 실질적 요건으로서 현저한 개전의 정을 일반적으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도 이러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석은 지나치게 높은 절대적인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교도소 내에서의 범죄자의 완전한 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서 재범의 우려가 없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현행 가석방의 실질적인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있다’는 요건은 ‘재범의 우려가 높다’는 절대적인 판단이 아니라 ‘재범으로 나아가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사실 예후의 판단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서 항상 실패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

14) 영국은 3년, 프랑스는 초법과 누점을 구분하여 초법은 3개월, 누법은 6개월 기준으로 하며, 독일은 2월 이상 유기자유형의 경우는 3분의 2, 6월 사상의 유기자유형의 경우는 2분의 1, 무기자유형은 15년을 경과한 때 가석방할 수 있다(강동범·이강민, 앞의 글, 9-10면 참조).

15) 가석방심사 대상자의 기준에 대하여 가석방심사위원회는 형법 제72조 제1항의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하여 가석방 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형집행법 시행령 제53조). ① 행형 성적 심사 결과 누진 계급이 최상급에 속하는 자(호), ② 제1호 외의 수형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2호).

16) 실무에서는 개전의 정을 판단할 시 반성 혹은 재범 위험성을 가장 보편적인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반성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며, ‘현저함’과 ‘개전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라는 점에서 객관화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행상의 양호는 재사회화 준비의 정도로 바꾸어 미국의 Good Credit와 같은 객관적 지표화를 활용하자는 견해도 있다(박미랑, 앞의 글, 162-165쪽 참조).

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45조.

18) 박상열, 앞의 글 22면.

기 때문에 이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하면 가석방이 극히 위축되어 사회 내 적용 과정이 불필요할 정도로 개선된 차만이 가석방이 되어 가석방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여전히 ‘개전의 정’이라는 용어의 정도를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그 판단 기준이 객관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sup>19)</sup>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2년 법무부는 범죄요소, 생활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된 수형자 재범 위험성 조기 예측을 위한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 : Correction Recidivism Prediction Index)’를 도입하였는데, 최소한 재범 위험성 평가의 객관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sup>20)</sup> 그러나 현재 가석방심사 기준인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 활용이 저조한 상태이므로 향후 Co-REPI 반영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sup>21)</sup>

반면 후술하는 회복적 사법제도로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 사죄를 통한 형사화해의 결과는 수형자의 ‘개전의 정’, 즉 ‘반성’을 판단하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5. 가석방 조건으로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제도 도입

현재 미국의 법원에서 빈번하게 부과되는 집행유예 조건으로 피해보상과 사회봉사명령이 있다. 피해보상은 범죄자가 그 범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물질적을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범죄자가 물질적 보상 능력이 없으면 개인적인 노력 봉사로서 이에 대신하도록 하고 있다.<sup>22)</sup>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이 죄질이 가벼운 범죄자나 비행소년에 자주형을 집행하는 대신 일정 기간 무보수로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독일은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 준수 사항으로 사회봉사명령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제도의 활용은 가석방자의 생활 적응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정상적 사회 복귀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sup>23)</sup> 또한 사회봉사명령은 가석방자에게 강

19) 이러한 의미에서 행형 성적에 따른 수형자의 누진처우등급은 객관적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수형자분류처우규칙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4단계로 나뉜 누진처우등급에서 최상급 단계인 1급에 진급하여 그 책임 점수를 전부 소각하여 가석방이 허가될 수 있다. 누진처우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빛이 뚜렷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가석방이 허가될 수 있다(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88조).

20) 특히 박미랑 교수는 교정 재범예측지표(Co-REPI)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히 지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재범 위험성 평가에 있어 피해자가 이는 사람일 경우와 모르는 사람을 점수화하여 피해자가 모르는 사람일 경우일 때 위험성 자수가 높도록 하고 있으나 친족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자인인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점에서 범죄 종류에 상관없이 단일한 Co-REPI가 적용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박미랑, 앞의 글, 163-164면).

21) 김동현, ‘재범예측지표를 활용한 고위험 범죄자 처우의 과학화 방안’, 「교정연구」 제27권 제2호, 한국교정학회, 2017, 31면.

22) 박상기, 앞의 글, 24면.

23) 이러한 면에서 가석방 허가 시 필요적 보호관찰을 엄격하게 실시하는 대신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제도 도입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남선모·이인곤, 앞의 글, 25면; 박영구, ‘현행 가석방제도의 개선 방안’, 「교정연구」 제62호, 한국교정학회, 2014, 23면). 반면 교도소 내에서의 행상은 좋았지만 소방 후 재범 가능성이 높은 자를 선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자는 견해는 경미한 범죄자와 고질범의 경우에는 보호관찰이 사회에 적용하는 데 오히려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박영규, 앞의 글, 22면).

제적으로 사회에 봉사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행한 범죄에 대해 사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 것이기 때문에 가석방자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일반 국민들의 가석방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석방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sup>24)</sup>

## V. 회복적 사법을 통한 가석방제도 발전 방향

### 1. 교정에 있어 회복적 사법 도입의 필요성

회복적 사법은 전통적 형사사법시스템에 내재된 파괴적인 비인간적 전문적 특성을 배척하고 사건 관련자가 자율적으로 피해의 회복과 재통합을 추구하는 새로운 사법 패러다임이다.<sup>25)</sup> 즉 회복적 사법은 형사절차 모든 단계에서 적용이 가능하다.<sup>26)</sup> 특히 교정단계에서는 다른 형사절차단계와 달리 감형 등 유리한 처분을 기대하지 않고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자발적 대화를 통해 진정한 변화와 정신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sup>27)</sup>

회복적 사법은 단순한 이익의 충돌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에 관한 갈등을 협상에 의해 해소하고자 한다. 따라서 형사사법절차에서 회복적 사법을 도입한다는 것은, 전통적인 형사사법절차를 가치 갈등 해소를 위한 틀로 삼고 그 체계 내에서 이익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상을 허용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회복적 사법을 활용하여 전통적 형사사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효율을 증대시킬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sup>28)</sup> 그동안 행위자 지향적 범죄학 내지 형사정책의 극치라 할 수 있는 교정주의가 선진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에서 실패 내지는 최소한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29)</sup> 그 이유는 많은 수형자들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무관심한 상태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sup>30)</sup> 또한 사회봉사명령은 가석방자에게 강

24) 원혜운, “현행 가석방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성인수형자를 중심으로”, 「교정연구」 제47호, 한국교정학회, 2010, 52면.

25) 회복적 사법은 다음과 같은 기본 이념을 추구한다. ① 어떤 경우에도 용서나 회복을 강요하지 않는다. ② 단순한 조정(Mediation)이 아니라 회합과 대화가 우선이다. ③ 피해자의 요구충족과 기여자의 책임 수용이 우선이며 재범 감소는 부작적인 당연한 결과이다. ④ 회복적 사법은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이다.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수 있다. ⑤ 개인적 법익이나 경마한 범죄만 다양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범죄 유형에 적용할 수 있다. ⑥ 북미에서는 새로이 창설된 제도가 아닌 인류의 문화, 전통으로부터 유래된 오랜 역사 제도이다. ⑦ 회복적 사법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도 없고, 반드시 전통적 법체계가 회복적 사법으로 대체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응용에 반대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구금제도의 대안으로 채용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김용세·류병관, 앞의 책, 15-18면 참조).

26) 또한 가석방제도는 수형자의 교화·개선 및 사회 복귀를 도모하는 사회 내 처우라는 점에서 행형의 목적 달성을 동시에 예방적 관점에서 회복적 사법을 실현하는 교정복지적 기능을 기진다고 주장한다(김준성, 위의 글, 255면).

27) 정준영, ‘치유와 책임 그리고 통합: 우리가 회복적 사법을 만날 때까지’, 저스티스 통권 134-3호, 한국법학원, 2013, 544면.

28) 김용세·류병관, ‘교정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가능성’, 24면. 다만 회복적 사법이 전통적인 형사사법의 한계를 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안성훈, ‘회복적 사법과 재범 방지에 관한 소고’, 「범죄와 비행」, 2012, 72-83면).

29) 이수성, ‘사회 내 처우의 소개와 평가’, 「법무연수원 비상근원무원논문집」 제2집, 법무연수원, 1988.

교도소에서 석방되면서 모든 ‘죗값’을 치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sup>31)</sup> 특히 행위자의 사회 복귀라는 특별 예방 목적이 교정에서 유일한 이념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응보·일반예방·무해화 또는 억제 등 전통적인 행형 목적도 완전히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행위자의 능동적인 책임 인정과 진심 어린 회오, 그리고 책임에 상응하는 불이익 처분을 통한 속죄도 역시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불가결한 전제가 되는 것이다.<sup>32)</sup>

이러한 의미에서 수형자의 효과적인 재사회화와 관련하여 1980년대 이후로 행형법 개혁의 논의에서 등장하는 테마 중의 하나는 행형단계에서 수형자의 재사회화와 범죄 피해자 보호 사상을 결합시키는 관념이다. 이것은 수형자의 자발적인 교정과정에의 참여를 전제로 하여 수형자가 범죄 피해자에게 범죄로 인한 피해 결과를 원상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화해한 경우에는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통찰하고 책임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당해 수형자의 재사회화 판단에서 긍정적인 징표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sup>33)</sup>

이러한 회복적 교정관념은 행위자 중심의 전통적 교정관념에서 탈피하여 교정에 포함되는 대상을 사회와 피해자에게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으며,<sup>34)</sup> 회복적 교정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피해자가 피해의 고통을 극복하고 재활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둘째 가해자와 재사회화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는 범죄 사건으로 인해 교란된 법질서를 항구적으로 회복하고 범죄 발생의 위험을 최소화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의 범죄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다. 넷째 교정단국도 교정 행정의 효율 증대라는 커다란 이익을 획득할 수 있다.<sup>35)</sup>

### 2. 회복적 사법으로서 형사화해조건부 필요적 가석방제도 도입

필요적 가석방제도란 가석방 시 형식적 조건(형기의 경과)만 충족하면 실질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수형자를 가석방하는 제도이다.<sup>36)</sup> 실

30) 가해자들은 법정에서 탄원서에서는 판사에게 잘못을 사과했지만 정착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죄책과 공감이 부족한 상태에서 석방된 출소자가 재범할 확률은 당연히 높은 것이다(김영식, ‘교정단계 회복적 사법 적용 사례에 관한 연구’, 「교정단론」 제7권 제2호, 아시아교정포럼, 2013, 289면).

31) 김길운, ‘한국형법」, 박영사, 1997, 64면; 김용세·류병관, 위의 책, 278면.

32) 교정단계에서 피해자 보호는 수형자의 재사회화 목적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실천되어 한다는 관점에서,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실천을 위한 법적 근거도 형집행법 제8장(수형자 처우)에 규정되어야 하므로 제53조에 별도의 형을 신설하여 회복적 사법 실천과 관련된 원칙 규정을 두고, 형집행법 제64조(교환 프로그램) 아래에 분쟁 조정 신청 절차, 조정위원 자격과 임무, 교정시설의 장과 교정공무원의 임무,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진국,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실천 방안’, 「교정연구」 제27권 제2호, 한국교정학회, 2017, 16-17면).

33) 이경한, ‘보호관찰에 있어 회복적 사법 적용 가능성 검토’, 「피해자학연구」 제12권 제4호, 한국피해자학회, 2004, 53-83면.

34) 김용세·류병관, 앞의 책, 31-32면.

35) 현행 재방적 가석방만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 제도에 의하면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이 경과하면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요건인 ‘개전의 정’에 의해 가석방 가능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형식적 요건 거의 유형무실하고 궁극적으로 가석방제도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박상열, 앞의 글, 18-20면).

제 필요적 가석방제도를 운영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sup>36)</sup> 가장 큰 걸림돌은 일정한 형기가 지나면 기계적으로 석방하는 것에 대하여 일반 국민의 정의 감정에 받아들이기 어려워 국민들의 극심한 반대가 예상된다는 점이다.<sup>37)</sup>

반면, 형사화해란 일반적으로 사회 공동체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범죄로 인한 갈등 양상이나 피해 발생에 대하여 조정 절차를 통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수용 등 사회적 평화의 회복을 지향하는 것으로 형사 사건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성립하는 분쟁 종결의 합의를 말한다. 이는 미국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발된 피해자-가해자 회복 프로그램(victim-offender reconciliation program)에서 차용한 용어로서 갈등 해결을 위한 의사 소통 과정 자체를 뜻하기도 하며 또한 그로 인한 긍정적인 결과물을 의미하기도 한다. 형사화해의 핵심 내용은 훈련받은 중재자의 도움을 얻어 사건 관계자들이 직접 대화함으로써 자기 행위의 책임 인정을 전제로 한 진정 어린 사과와 용서, 피해 회복 등을 통해 분쟁을 종식하고 그 결과로 형사절차를 중단하거나 기소 여부, 형벌의 감면, 가석방 등의 판단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sup>38)</sup>

현행 가석방제도에 의하여 수형자의 '행성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수형자가 피해자에게 화해나 원상회복을 이행하였는 가를 불문하고 행정처분으로서 가석방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형자가 피해자와 화해를 이루고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최대한 배상해주는 것이야말로 가석방의 실질적 요건으로서 '행성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는 가석방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sup>39)</sup>을 명문화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특히, 독일형법 제46(b)조에는 공소제기 후 형사화해제도에 대해 규정하여 법원이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며 이를 가석방에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원상회복(Restitution)제도는 개인 및 조직체에 대하여 주로 금전적인 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외적으로 사회봉사명령과 같은 사회에 대한 상징적인 변상을 포함하는 경우도

36) 이러한 문제점으로는 첫째 사실상 형기의 단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선고형에 갖는 의미가 퇴색된다. 둘째 필요적가석방을 예상한 높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며, 셋째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형자까지 형기 만료 전에 석방함으로써 사회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며, 넷째 필요한 가석방이 일반화되어 처우의 개별화와 수형자의 개선생상을 도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박상열, 앞의 글, 20면).

37) 이용경, '수형자의 인권', 「교정연구」 제28권 제2호, 한국교정학회, 2018.6, 39면.

38) 형사화해는 갈등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관점을 관용적으로 수용할 것을 전제로 한다는 면에서 범죄 피해 회복을 위한 기장 이상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39) 형사적 의미의 '원상회복'은 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급부를 통해 범죄로 인한 손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쇄함으로써 범의 침해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피해자에 대한 급부는 민사상의 금전적 손해배상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40) 원상회복으로 형벌을 대체하거나 가석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지만 이를 널리 확대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조준현, 앞의 글, 31면).

41) 법무부 가석방 업무 지침(2012. 6. 8.) 제46조(피해변제 및 피해자 김정) 참조.

42) 류병관, 앞의 글, 242~243면.

43) 장규원·진수명·이상웅, 앞의 책, 78~79면.

44) 피해자가 글로 탄원서를 보내는 것보다 직접 참여하여 모습을 보이는 경우에 가석방 허가 비율이 높았다고 한다. 물론 피해자의 가석방 참여가 증기할수록 가석방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박미랑, 앞의 글, 170면 참조).

있으며, 이미 1970년대에 보호관찰의 조건, 즉 가석방의 조건으로 이 용되고 있다.<sup>40)</sup>

또한 현행 우리나라 가석방 업무 지침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석방심사서 작성 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 및 피해자 감정을 기재하게 하고 있다.<sup>41)</sup>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형사화해를 유도하기 위하여 가석방의 실질 요건으로서 '행성이 양호'나 '개전의 정'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형법 제72조 제1항에 '형사화해'를 실질적 요건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sup>42)</sup>

### 3. 피해자 참여권 인정을 통한 가석방제도 인식 제고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는 수사, 공판 과정에서 범죄자가 자신에 미친 영향에 대해 진술할 기회가 있으나 가석방심사 과정에는 진술할 기회가 없다. 현재 미국은 피해자의 가석방 청문회 참여권이 보장되고 있다. 수형자의 가석방심사와 관련하여 가석방심사청문회를 개최하며 이때 피해자 및 가족, 친지 등이 참여하여 피해자의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가석방위원회는 피해자의 진술서를 고려하여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sup>43)</sup>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한 곳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피해자의 탄원서 제출 등과 같이 피해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수형자의 가석방심사표 접수에 유리한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있다.<sup>44)</sup> 즉 이러한 피해자의 참여권은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무엇을 했으며 그로 인해 얼마나 변화했는지에 대하여 피해자가 알 수 있게 하여 가해자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또한 가석방위원회는 피해자의 의견 진술을 청취하고 그 의견에 반해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석방 허가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범죄 당시와 그 이후에 받은 피해로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받은 육체적·정신적·의학적·재정적 영향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판장에서 진술한 이외의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도 진술할 수 있다. 또한 재소자의 조기석방이 피해자 또는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포함될 수 있다. 현재 미국의 경우 31개 주가 주(州)수정헌법상 피해자권리조항을 두고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으로 가석방 절차에서 피해자 의견진술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수형자의 환경 조사 또는 가석방·보호관찰·사면 등의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황이나 감정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가석방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감정이 '개전

의 정'을 판단하는 한 요소로서 고려되고 있는 것이다.<sup>45)</sup> 따라서 우리나라로 가석방심사에 있어서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필요적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sup>46)</sup>

결론적으로 가석방심사 시 피해자 참여권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절차상 침묵을 강요받았던 피해자가 형사절차 과정에서 자신이 범죄로 인해 받은 고통을 호소하고 가해자로부터 사죄를 받고 용서해줄 수 있는 있는 마지막 기회를 갖는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또한 가석방 절차에서 피해자 권리인 인정하는 것이 가석방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가석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sup>47)</sup>

### 4. 교정청 독립을 위한 전제로서 회복적 사법 활용

현재 경찰,<sup>48)</sup> 검찰, 공판절차에 이르는 형사법의 전 과정에서 회복적 사법의 철학을 반영한 형사화해, 피해자 공감 프로그램, 배상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그렇지만 가해자의 책임 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임무를 진정으로 시도해볼 수 있는 단계가 교정단계라 볼 수 있다. 즉 회복적 사법의 가치는 범죄자 교정의 목표와 잘 부합한다고 본다.<sup>49)</sup>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흉악범죄, 정신장애자 범죄 및 경력 범죄는 과학적 분류 심사, 치료적 개입 등 교정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회복적 사법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도 교정청의 독립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견해에 동의한다.<sup>50)</sup> 나아가 교정청을 독립하고 캐나다의 '회복적 사법과 분쟁 해결에 관한 연방위원회'처럼 '회복적 교정 운영위원회(가칭)'를 각 지방교정청 별로 설치하고 회복적 교정의 도입을 위한 연구 및 시범 실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게 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sup>51)</sup>

45) 일본형법 제28조, 일본 가석방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46) 물론 피해자는 의견 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의견청취는 직접 진술, 서면 제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류병관, 앞의 글, 244면).

47) 가석방은 사회 내 처우의 한 형식이며 범죄자를 피해자가 생활하고 있는 사회 공간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연히 피해자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형사전체는 범죄자의 개선생생과 재범 방지를 통한 사회 안전의 확보를 목적으로 범죄자 처벌을 통해 피해자의 감정을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이제는 가석방에서도 피해자의 권리를 인정하여 가석방심사에서의 '의견청취' 및 가석방에 관한 피해자의 정보제공권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박상열, '가석방제도의 실태와 확대 방향', 교정연구 제26권 제2호, 한국교정학회, 2016, 8면).

48) 경찰청은 2019. 4. 30.~10. 31.(개월간까지) 피해자의 치유·회복에 무관심한 응보적 사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갈등·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회복적 경찰활동'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경찰청 '회복적 경찰활동' 사법운영 계획, 2019).

49) 윤윤경, '교정조직 독립의 필요성과 과제', 「교정연구」 제28권 제2호, 한국교정학회, 2018, 65면.

50) 윤윤경, 앞의 글, 63~65면 참조.

51) 이러한 회복적 교정을 도입하기 위해서도 심리학·법률학 등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전담 직원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김용세·류병관, 앞의 책, 65면). 벨기에에서는 1997년 범무부장관이 형사사법에 대한 회복적 사법 가능성이 대한 검토를 지시하고, 1998년 전 벨기에 교도소에서 회복적 사법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2000년에는 교도소에 30명의 회복컨설턴트(회복적 사법 담당 전문가)를 임명하였다. 이들은 각 교도소에서 소장을 보좌하여 회복적 사법에 관한 직원 연수, 피해자-수형자 조정, 피해자에게 가석방, 석방 등 정보 제공, 피해회복기금 운용, 피해자인식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회복적 사법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이훈동, "교정 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과제와 전망"-벨기에 사례를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34권 제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102~110면).

## VI. 결론

현행 가석방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는 '인식의 전환'이라고 판단된다. 즉 범죄와 범죄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범죄의 사회적 책임을 보다 잘 인식하고 이제는 구금처우를 통한 사회 안전과 방위라는 소극적 행정정책을 넘어서야 할 것이다. 특히 이제는 가석방을 정부가 베푸는 시혜와 은전이 아니라 만기석방과 같은 재소자가 당연히 취해야 하는 권리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sup>52)</sup> 나아가 가석방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범죄자의 전한 사회 복귀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범죄자, 피해자, 사회가 화해를 시도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대통합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sup>53)</sup> 이제는 교정 분야에서도 피해자의 역할을 확대하고 가해자·피해자와의 화해를 통한 진정한 법질서 회복을 바탕으로 한 범죄자 교정의 길을 모색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물론 당장은 교정에 있어 이러한 회복적 사법제도의 도입이 가석방제도의 활성화에 부정적 요인으로 비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범죄자를 바라보는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킴으로써 교정 행정 전반에 관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교정행정의 영역에서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실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본다.<sup>54)</sup> 첫째, 교정 직원·일반 국민 모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sup>55)</sup>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직원 교육을 통한 회복적 사법의 필요성 및 긍정적 효과를 인식시키고, 지역 교정청 단위로 지역주민을 상대로 한 교도소 시설 개방, 정책 홍보 등으로 일반 국민들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교정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회복적 교정은 교정기관 내부의 특정한 업무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회복적 교정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정기관 상호 간의 협조 외에 경찰, 검찰 및 법원 등 유관 기관과의 협동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가해자·피해자 가족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52) 윤태현, '캐나다의 교정 및 조건부 석방법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의 가석방제도 개선 방안 연구', 「교정논문」 제1권 제2호, 아시아교정포럼, 143면.

53) 윤태현, '가석방과 사법의 비판적 검토를 통한 교정발전 방안 연구', 「교정연구」 제27권 제2호, 한국교정학회, 2017, 67~68면.

54) 김용세·류병관, 앞의 책, 63면.

55) 그동안 우리 사회의 소극적인 가석방제도 운영의 배경에는 가석방제도가 단순히 그 대상자를 위한 제도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석방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석방이 그 대상자와 피해자 그 기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제도라는 인식의 전환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윤태현, 앞의 글, 148면). 실제 교도소 내에서 회복적 사법에 대한 저항감은 실무에서 피해자와 수형자 회합, 지역주민의 교도소 침관 등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할 것이다(이훈동, 앞의 글, 109~110면). 따라서 교도관들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회복적 교정활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인적·물적 지원이 선방되어야 할 것이다.



## 본부 소식

더 많은 교정본부 소식은 교정본부 홈페이지([www.corrections.go.kr](http://www.corrections.go.kr)) 또는 페이스북([www.facebook.com/mojcor](http://www.facebook.com/mojco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42회 한일 교정직원 친선 무도대회 개최

교정본부는 11월 20일 '제42회 한일 교정직원 친선 무도대회'를 법무연수원에서 개최하였다. 이 대회는 양국 교정직원의 친선을 도모하고 양국의 교정 제도를 비교·연구하기 위해 197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에는 시마 코이치 동경교정관구장 등 24명이 대회 참석차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방한하였다. 유도·검도 2개 종목에서 단체전을 치룬 결과 유도에서는 일본이, 검도에서는 한국이 승리를 차지하였다. 일본 대표단은 친선시합 외에도 대전교도소와 서울동부구치소 등 교정기관을 방문하여 우리나라 교정행정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의 원격 의료 제도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 2019년 전국 교도관 응급처치경연대회 개최

2019년 '전국 교도관 응급처치경연대회'가 11월 6일 법무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긴급 상황 발생 시 교정공무원의 응급처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열린 이번 대회에는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 등 6명을 비롯하여 전국 10개 기관에서 각 3명씩 30명이 참여하였다.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이용한 응급 상황 대응 능력을 평가한 결과, 총 6팀에 최우수상(해남교도소), 우수상(상주·경주교도소), 장려상(부산·광주교도소, 서울동부구치소)이 돌아갔다.



### 2019년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2019년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이 11월 1일 인천구치소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훈련에는 인천구치소 자위소방대원 100명, 미추홀구청 25명, 미추홀소방서 191명 등 총 20개 기관 417명이 참가하여 지진 발생이라는 가상 시나리오에 따라 화재 진압과 수용자 긴급 이송, 도주자 체포 등의 협동 대응 훈련을 하였다. 최강주 교정본부장,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등 관계기관장 20여 명은 이날 행사를 참관하며 재난에 대응하는 과정을 꼼꼼히 살폈다.



### 2019년도 공직박람회 참가

교정본부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정보 제공과 유능한 인재 유치, 교정행정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11월 26일 서울 aT센터에서 개최된 '2019 공직박람회'에 참가하였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중앙부처, 헌법기관, 지자체 등 71개 기관이 공직 소개와 채용 안내를 위해 참가하였다. 교정본부는 홍보부스에 교정직 상담·안내 요원을 배치하여 채용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다양한 종류의 제복과 교정작품 등을 전시하였다. 제복을 입고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마련한 포토존과 관람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트레스 측정 이벤트도 큰 호응을 얻었다.



### 2019년 4분기 출소 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교정본부는 11월 1일부터 29일까지 전국 53개 교정기관별로 '2019년 4분기 출소 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하였 다. 한 달 남짓 진행된 이번 행사는 총 1,010명의 출소 예정자와 303개의 기업체가 참여하였다. 출소 예정자들은 각 기업 채용 담당자들과 일대일 현장 면접을 실시하고 신용 회복, 개인 회생, 창업 컨설팅 등에 대해 상담을 받았다.

# 일선기관 소식

## 서울지방교정청

###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유경열

#### 교정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 개최

서울지방교정청은 11월 27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새롭게 위촉된 교정자문위원회 회원 9명을 대상으로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박병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이수정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심리치료센터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논의하였다.



### 서울구치소 | 교사 변무관 '사랑 나눔 콘서트' 개최

서울구치소는 11월 11일 사회복귀과 대강당에서 수용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사랑 나눔 콘서트'를 열었다. 공연은 교정교화를 위해 힘써 온 서울구치소 교화분과위원회와 문화예술총연합회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가수 엘로비, 라온, 채강미, 강문경, 임생 단야 등이 대중가요와 팝페라 등 20여 곡을 불렀다.

### 서울동부구치소 | 교사 최재완

#### 한일 교정직원 친선 무도대회 일본 선수단 참관 행사 개최

서울동부구치소는 11월 21일 제42회 한일 교정직원 친선 무도대회에 참가한 일본 선수단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우리나라 교정 홍보 동영상을 시청한 후 서울동부구치소의 최신 설비 및 원격 의료 시스템을 확인하였다. 이번 행사는 양국 간 우호 증진 및 한국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좋은 기회였다.

를 50부씩 전달하고 있으며,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이를 수용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 의정부교도소 | 교도 김주용

#### 수용동 준공식 개최

의정부교도소는 10월 30일 새로 신축한 수용동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이 사업은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공장동을 부수고 수용동을 신축하여 수용률을 약 10% 낮추는 동시에 수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준공식에서 직원들은 다음과 함께 먹으며 준공을 축하하였다.



### 인천구치소 | 교사 김대현

####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실시

인천구치소는 11월 1일 지진에 따른 화재를 대비하기 위해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에는 미추홀소방서와 미추홀구청 등의 유관 기관과 민간단체에서 400여 명이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지진 발생으로 인한 건물 붕괴와 가스 누출, 화재 발생 등의 상황에서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응 능력을 높이는 훈련을 받았다.



### 여주교도소 | 교사 송재훈

#### 점동중학교 보라미 준법교실 실시

여주교도소는 11월 5일 점동중학교 1학년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보라미 준법교실을 실시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교정공무원의 진로를 체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생들은 수용 거실을 참관하고 교정 장비와 교도관 정복을 착용해 보면서 교정행정을 이해하였다.

###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명수환

#### 정자 준공 기념식 및 윷놀이 대회 개최

서울남부교도소는 11월 19일 행복한 직장 만들기의 일환으로 조성된 직원 쉼터 '정마루' 정자의 준공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많은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장, 각 과장이 준공 기념 리본 커링식을 진행하였다. 더불어 직원 회합 윷놀이 대회 결승전을 실시하여 직원 상호 간 친목을 도모하고 소통하였다.

### 춘천교도소 | 교도 이건희

#### 쌍용자동차 직업훈련용 차량 기증

춘천교도소는 11월 21일 쌍용자동차로부터 직업훈련용 렉스턴 스포츠 차량과 6단 자동변속기를 기증받았다. 이는 미래 자동차 전문 인력 양성, 기술 보급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쌍용자동차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춘천교도소는 기증받은 교보재를 수용자들의 직업훈련 과정 및 국가기술자격 검정, 정비 실습을 위해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수원구치소 | 교위 배창현

#### 수용자 대상 국민참여재판 특강 진행

수원구치소는 11월 14일 수용자 150명을 대상으로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한 특강을 진행하였다. 이번 특강은 전국 교정시설 가운데 수원구치소가 처음으로 실시한 것으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관하였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백성문 변호사는 실효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수용자들의 의문점을 해소해 주었다.

### 서울남부구치소 | 교위 김광찬

#### SBS 김정택 예술단 및 교정협의회 후원 행사 개최

서울남부구치소는 11월 18일 SBS 김정택 예술단과 교정협의회의 후원으로 성악 앙상블 공연팀과 수용자가 함께하는 행복 나눔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맘마미아' '안연' 등 대중적인 곡을 연주하며 수용자들의 감성을 자극하였다. 또한 교정협의회는 모든 수용자에게 희망의 사과 2,400개를 지급하였다.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이재희

#### 경기일보 화성지사 월간 <PHOTO경기> 전달식 개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11월 20일 경기일보 화성지사 자문위원회와 함께 월간 <PHOTO경기> 전달식을 개최하였다. 경기일보 화성지사는 지난 1월부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월간 <PHOTO경기>

를 50부씩 전달하고 있으며,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이를 수용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 의정부교도소 | 교도 김주용

#### 수용동 준공식 개최

의정부교도소는 10월 30일 새로 신축한 수용동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이 사업은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공장동을 부수고 수용동을 신축하여 수용률을 약 10% 낮추는 동시에 수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준공식에서 직원들은 다음과 함께 먹으며 준공을 축하하였다.



### 인천구치소 | 교사 김대현

####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실시

인천구치소는 11월 1일 지진에 따른 화재를 대비하기 위해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에는 미추홀소방서와 미추홀구청 등의 유관 기관과 민간단체에서 400여 명이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지진 발생으로 인한 건물 붕괴와 가스 누출, 화재 발생 등의 상황에서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응 능력을 높이는 훈련을 받았다.

를 50부씩 전달하고 있으며,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이를 수용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 여주교도소 | 교사 송재훈

#### 점동중학교 보라미 준법교실 실시

여주교도소는 11월 5일 점동중학교 1학년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보라미 준법교실을 실시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교정공무원의 진로를 체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생들은 수용 거실을 참관하고 교정 장비와 교도관 정복을 착용해 보면서 교정행정을 이해하였다.



### 여주교도소 | 교사 송재훈

#### 수용동 준공식 개최

여주교도소는 10월 30일 새로 신축한 수용동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이 사업은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공장동을 부수고 수용동을 신축하여 수용률을 약 10% 낮추는 동시에 수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준공식에서 직원들은 다음과 함께 먹으며 준공을 축하하였다.



### 영월교도소 | 교도 서주현

### 원주교도소 | 교사 천병훈

####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참관 행사 개최

원주교도소는 11월 7일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학생들은 수용 거실과 직업훈련장 등을 둘러보고 사회복귀과 업무 소개 강연을 청취하며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에 대해 이해하였다.

### 강릉교도소 | 교위 이태석

####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실시

강릉교도소는 11월 25일 강원도장애인단체연합회 임기연 강사를 초빙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 내용은 장애의 정의 및 유형, 장애 인지 감수성을 통한 장애 인식 개선,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관련 법과 제도 등이었다.

### 영월교도소 | 교도 서주현

#### 세계대학교 소방구조구급과 참관 행사 개최

영월교도소는 11월 11일 세계대학교 소방구조구급과 교수 및 학생 29명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참여자들은 현황 설명 및 동영상을 시청하고, 자치생활관과 복지관, 공동 식당 등을 둘러보았다. 이후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 수원구치소 | 교사 윤우리

#### '2019 하반기 취업지원협의회 정기 회의' 개최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11월 27일 내·외부 위원 각각 5명씩이 참석한 가운데 '2019 하반기 취업지원협의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용자 취업·창업 교육,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를 발표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토의하였다.

###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도 진용혁

#### 백석대학교 교정보안학과 참관 행사 개최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11월 7일 백석대학교 경찰 학부 교정보안학과 대학생 36명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학생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중앙통제실, 수용동, 작업장 등 교정교화 현장을 직접 둘러봄으로써 교정행정에 대해 꼭넓게 이해하고, 전문 소양을 넓혔다.

## 대구지방교정청

###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최현철

#### 송무 담당자 간담회 개최

대구지방교정청은 11월 25일 영상회의실에서 대구지방교정청 소속 기관 송무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과밀수용 국가 소송에 대비하여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소속 기관의 주요 소송 사례를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대구교도소 | 교위 김재현

#### 대구과학대학교 경찰경호행정과 참관 행사 개최

대구교도소는 11월 18일 국민과 함께하는 교정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대구과학대학교 경찰경호행정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참여자들은 교정행정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고 형사법 관련 프레젠테이션을 들었으며 교정 장비를 체험하였다. 이를 통해 형사법 집행 절차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 창원교도소 | 교도 한기상

#### 사랑의 헌혈 운동 실시

창원교도소는 11월 8일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헌혈 운동은 11월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창원교도소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이날 직원들은 헌혈을 하면서 이웃을 위한 고귀한 생명 나눔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로 다짐하였다.



### 부산교도소 | 교위 박종철

#### '무연고 수용자, 가족 만남의 날' 행사 개최

부산교도소는 11월 22일 종교관에서 무연고 수용자 40명(S3급 27명 등)을 대상으로 '무연고 수용자, 가족 만남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를 후원한 천주교 부산교구 교정사목회 장영희 수녀는 수용자들에게 따뜻하고 푸짐한 음식을 대접하며 가족의 정을 배웠다.



### 포항교도소 | 교사 권대희

#### 유관 기관 합동 소방 훈련 실시

포항교도소는 11월 20일 위탁 작업장에서 지진 및 화재 발생에 따른 대피 훈련과 유관 기관 합동 소방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전 직원과 흥해19안전센터 및 수용자가 함께하는 참여형 훈련으로 지진이나 화재 발생 시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대구지방교정청

### 진주교도소 | 교위 성태현 교정위원 성각 스님 선화(禪畫) 기증식 개최

진주교도소는 10월 22일 진주교도소 교정위원 성각 스님으로부터 선화(禪畫) 22점을 기증받아 11월 1일 기증식을 개최하였다. 진주교도소는 기증 받은 선화(禪畫)를 수용자와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한 달간 전시한 후 수용자 교화용으로 이용할 예정이다.

### 대구구치소 | 교사 곽명재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대구구치소는 11월 13일 취업 면접 및 상담을 희망하는 출소 예정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형 방식으로 '2019년 제4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하였다. 행사에는 지역 유망 기업 5개 업체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참여하였으며, 각 기업체 대표가 수형자들에게 취업 암전 및 취업 정보를 제공하였다.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하우현 보라미 봉사단 활동 실시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11월 20일 노인복지시설인 청송교호나눔복지센터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보라미 봉사단 활동을 실시하였다. 보라미 봉사단 활동은 수형자·심성 순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실시되었으며, 이발 및 환경 정리를 통한 재능 기부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 안동교도소 | 교사 김길수 농촌 일손 돋기 봉사 활동 실시

안동교도소는 11월 6일 가을철 농번기를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돋기 위해 농촌 일손 돋기 봉사 활동에 나섰다. 봉사 활동에 참여한 직원 10여 명은 지역의 과수 농가에서 사과 수확 작업을 도왔다.

###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사 심상현 로맨틱 양상불의 '마음 차유 콘서트' 개최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11월 8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으로 나우컴즈 팀을 초청하여 로맨틱 양상불의 '마음 차유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이번 콘서트는 수용자 대상의 맞춤형 공연으로, 마술과 토크, 영화 주제가 연주 등으로 진행되었다.

###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조덕래 광주교도소 교정위원 참관 행사 개최

김천소년교도소는 11월 5일 광주교도소 교정위원 등 39명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교정위원들은 교도소 구내 시설을 참관하고 소년수형자들의 다양한 처우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민동백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11월 18일 대회의실에서 신규 교정직(9급) 공무원 5명을 대상으로 신규 직원 임용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임용식에는 소장과 각 과장, 직원들이 참여하여 진심을 다해 축하하였으며, 신규 직원들에게 서약패를 증정하고 교도관 서약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 울산구치소 | 교도 박준규 울산대학교 경찰학과 참관 행사 개최

울산구치소는 11월 11일 울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와 학생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참가자들은 수용동과 수용자 취사장, 가족 만남의 집, 민원봉사실을 참관하고 최첨단 시설과 설비, 위생적인 수용 환경 등을 확인하였다.



### 경주교도소 | 교위 박상신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경주교도소는 11월 18일 소장을 비롯한 각 과과장들이 참석하여 신규 공무원 10명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새로 임용된 공무원들에게 계급장과 임명장, 꽃다발을 수여하였다. 송상기 소장은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하여 교도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를 바란다"며 축사를 전하였다.

### 통영구치소 | 교위 강구혁 문화가 있는 날 행사 개최

통영구치소는 10월 30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이하여 통영 롯데시네마에서 영화 <82년생 김지영>을 관람하였다. 이날 소장과 부서장, 각 과 직원 등 21명은 영화 관람 후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여성 경력 단절 및 산후우울증, 정부의 육아 정책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 밀양구치소 | 교도 최상훈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밀양구치소는 11월 6일 출소 예정자 8명과 지역 우수 기업 5개 업체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참여한 가운데 출소 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진행하였다. 참여 업체 채용 담당자는 수형자와 일대일로 현장 면접과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관련 상담 등을 실시하였다.



### 상주교도소 | 교위 임대욱 동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참관 행사 개최

상주교도소는 11월 15일 동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참가자들은 수용 거실과 작업 현장을 참관하고 교정행정에 대해 이해하였다. 또한 수용자 교정교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바람직한 공무원상을 정립하였다.

## 대전지방교정청

###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정구완 '제42회 한일 친선 무도대회' 환영 연회 개최

대전지방교정청은 11월 20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제42회 한일 친선 무도대회'에 참가한 양국 선수단의 환영 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연회에는 일본 교정 직원 24명과 한국 선수단 76명이 참석하여 양국의 교정행정에 대해 이해하고 교정 직원 간 우정과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보냈다.



### 대전교도소 | 교감 송재상 임시정부 100주년 <대전교도소사> 출판기념회 개최

대전교도소는 11월 1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전교도소사>를 발간하고 출판기념회 및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대전교도소사>에는 광복 이전 대전감옥 시절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수용되었던 기록부터 대전형무소를 거쳐 전문화, 선진화된 교정행정을 구현하는 현재의 모습 등 발전상을 담았다. 이 책은 향후 교정역사 연구에 소중히 활용될 예정이다.

### 청주교도소 | 교위 박해양 '애(愛)너지 충전 나들이' 봉사 활동 실시

청주교도소는 11월 9일 충청북도 괴산군의 '청천재활원'과 함께하는 '애(愛)너지 충전 나들이' 봉사 활동을 실시하였다. 청주교도소 '회심길봉사단'은 이날 장애인 27명과 함께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을 방문하여 함께 수목원을 거닐며 장애인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도왔다.

### 천안교도소 | 교도 전인호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정시설 참관 행사 개최

천안교도소에서는 11월 4일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및 학생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교정 홍보 자료를 통해 분류심사업무의 개념과 흐름 등을 자

동영상 시청, 보호 장비 교육 및 구내 참관 등을 통해 교정행정 및 교정공무원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넓혔다.



### 청주여자교도소 | 교사 김은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참관 행사 개최

청주여자교도소는 11월 8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18명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교정공무원의 역할 등 교정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함이었다. 참가자들은 청주여자교도소 현황에 관한 영상을 시청하고 작업장과 수용동, 작업훈련장 등을 참관하였다.

### 공주교도소 | 교위 이경민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공주교도소는 11월 18일 공직에 입문하는 새내기 공무원들의 임용을 축하하고 환영하기 위해 신규 직원 2명을 대상으로 임용식을 개최하였다. 직원들은 임용식에서 신입 직원들의 새 출발을 축하해 주며 앞으로의 성장과 발전을 당부하였다.



세히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분류심사업무를 더욱 깊이 이해하였다.

### 홍성교도소 | 교도 조경환 4대 폭력 예방 교육 실시

홍성교도소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직원교육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신미희 충남이동형청소년문화센터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심각성을 느낄 수 있도록 4대 폭력의 주요 사례와 신고 방법을 교육하였다.



### 천안개방교도소 | 교사 하대웅 백석대학교 경찰학과 참관 행사 개최

천안개방교도소는 11월 11일 백석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및 학생 23명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수용 거실과 공장동 작업 현장, 가족 만남의 집 등을 둘러보고 깨끗한 수용환경과 선진화된 수용자 처우 프로그램에 감명을 받았다.

###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사 유제영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 실시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11월 13일 법무부 심리치료과 주관으로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심리상담사는 노파 측정기로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관련 상담을 진행하였다. 이어 피지컬 트레이너들이 직원들의 체형을 교정해 주었다.

###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사 정연호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11월 12일 논산 YMCA가 정폭력상담소 이영진 강사를 초빙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은 성희롱·성폭력의 유형과 발생 원인을 숙지하였으며, 양성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평등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로 다짐하였다.

## 광주지방교정청

###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안동일 소속 기관장 회의 개최

광주지방교정청은 11월 19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중회의실에서 청장 및 각 과장, 신하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속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조직 내 갑질 행위 균절 방안'과 '승진 제도 개편에 따른 합리적 근무 성적 평가 방안'에 대한 기관별 주제 발표 및 토의를 진행하고 일선 근무 현장에 도움이 될 합리적·발전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 광주교도소 | 교사 박승현 행복한 직장 만들기 '한마음 체육 행사' 개최

광주교도소는 11월 20일 테니스장에서 직원 화합 및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마음 체육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8개 팀이 투호, 족구 대회 등으로 열띤 경합을 펼치며 화합하였다. 대회를 마친 후에는 간식을 나누어 먹으며 선후배가 소통하는 시간을 보냈다.

### 전주교도소 | 교위 박승훈 농촌 일손 돋기 봉사 활동 실시

전주교도소는 11월 6일 일손이 집중되는 농번기를 맞아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지역 농가에 일손 돋기 봉사 활동을 실시하였다. 직원들은 전라북도 진안군의 비시랑골에 위치한 비시농원에서 사과 수확 봉사 활동을 진행하였다.



### 순천교도소 | 교사 이승현 '제7회 디딤돌 교정 장학금' 전달

순천교도소는 11월 20일 순천 지역 초등학교 및 중

학교 4곳을 방문하여 '제7회 디딤돌 교정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디딤돌 교정 장학금은 순천교도소 직원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조성한 것이다. 직원들은 장학생으로 선정된 15명의 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 목포교도소 | 교사 김민선 찾아가는 적극 행정 사례 교육 실시

목포교도소는 11월 7일 인사혁신처에서 위촉한 박종풍 강사를 초청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적극 행정 사례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을 통해 직원들은 적극 행정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고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바람직한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해 알아보았다.

### 군산교도소 | 교사 정임택 수령자 마음 치유 콘서트 개최

군산교도소는 11월 1일 수령자 마음 치유 콘서트 교화 공연을 개최하였다. 이번 교화 공연은 수용자의 정서 안정과 심성 순화, 밝고 명랑한 수용생활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교정 사고를 예방하고자 개최되었다.

### 제주교도소 | 교사 황승민 각 부처 퇴직 공무원 참관 행사 개최

제주교도소는 11월 18일 각 부처 퇴직 공무원 14명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교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교정 현장을 소개함으로써 교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정읍교도소 | 교도 박승현 정읍시 행정 동우회 회원 참관 행사 개최

정읍교도소는 11월 7일 정읍시 행정 동우회 회원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 교도소와 교정공무원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교정행정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 교정공제회

### 장흥교도소 | 교위 오창용 '수령자 한마음 잔치 마당' 행사 개최

장흥교도소는 11월 25일 대강당에서 전 수령자를 대상으로 '수령자 한마음 잔치 마당'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12명의 수령자가 그동안 갈고 닦은 노래 실력과 끼를 한껏 발휘하며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이를 관람한 수령자들은 열띤 참여와 호응으로 심신을 치유하는 시간을 보냈다.



### 해남교도소 | 교도 이상문 옥천면 유관기관 협동 체육 행사 참여

해남교도소는 11월 6일 옥천면 유관 기관 협동 체육 행사에 참여하였다. 올해로 제7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에는 해남교도소 등 옥천면 소재 6개 기관 임직원이 한데 모여 소통 및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기관 간 유기적 공조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 정읍교도소 | 교도 박승현 정읍시 행정 동우회 회원 참관 행사 개최

정읍교도소는 11월 7일 정읍시 행정 동우회 회원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 교도소와 교정공무원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교정행정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 제9회 교정공제회 정기대의원회 개최

교정공제회는 11월 29일 서울 서초동 드마리스다이닝 회의실에서 제9회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신임 이사장 후보로 지원한 대전교도소 권민석 소장을 제29대 교정공제회 이사장으로 선출하였다. 또한 2020년도 교정공제회 수입·지출 예산 편성(안)을 심의 의결하여 법무부에 승인을 요청하였다.

## 모범공무원을 소개합니다



### 수용자 직원 고소 사건의 능동적 해결로 적극적인 업무 환경 조성

관규를 위반한 수용자가 기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CRPT 직원 3명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하자 변호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수용자의 주장을 명확하게 반박하는 의견서를 증거와 함께 검찰청에 제출하고 사실 관계를 해명하였다. 또한 현장 검증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직원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심리적 위축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 수용자들의 바람직한 수용생활 유도 및 직원 응급 사고 예방

신입 수용자들이 바람직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 및 소지품 검사를 철저히 하여 부정 물품이 교정기관에 반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또한 수용동 근무 자로부터 '몸이 아파도'는 전화가 걸려 오자 신속히 전 직원에게 상황을 전달한 뒤 곧바로 응급 후송함으로써 위험한 상태였던 직장 동료의 생명을 구호하였다.

서울



### 관심 대상 수용자 집중 관리 및 미결수용자 법률 구조 지원

평소 수용질서 확립 및 교정사고 예방을 위해 규율 위반 전력이 있는 수용자와 조직 폭력 및 미약류 관련 수용자의 범죄 내용과 이력을 파악하고 동정을 시찰하였다. 또한 미결수용자가 소송 절차나 권리 구제 등에 대해 문의할 경우 고충처리팀 직원과 연결해 주며 수용자의 법률 구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대구



### 성실한 근무 및 보라미 봉사단 활동으로 교정행정 이미지 제고

보안과 보안행정 서무 근무자로 평소 성실하게 보안 관련 및 계획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복귀과가 주관하는 수용자 보라미 봉사단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며 사랑의 집, 군산경로식당 및 엘림요양원 봉사 활동에도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교정행정 이미지를 확산하고 있다.

광주



### 청렴한 공직 문화를 위한 청탁 금지법 실천 및 수용자 권리 구제

미결수용동 담당 근무자로서 한 수용자가 추석 명절에 가족을 통해 한우 선물 세트를 보내자 즉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금품 수령 사실과 반환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해당 물품을 제공자에게 정중히 반환하며 청탁금지법을 몸소 실천하였다. 평소에는 신입 안내 교육 및 형사 절차 안내를 통해 수용자들의 심신을 안정시키고 권리를 구제하고 있다.

대전



## 국민들이 교정공무원을 응원합니다!

“

이웃에게 따뜻한 연말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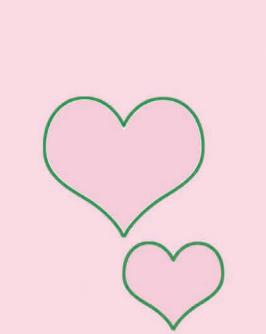
대학생 김효정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오랜만에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에 다녀 왔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도심과 떨어진 외곽이라 혼자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학업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지내다 보니 훌로 지내는 독거노인분들의 쓸쓸함을 알 것 같기도 합니다. 더구나 매년 연말이면 화려한 거리 분위기와는 달리 혼자인 외로움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사회복지시설에 봉사 활동을 다녀온 뒤부터 독거노인 이 더욱 눈에 밟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고향 이웃들의 안부를 묻곤 하는데 그러면서도 선뜻 다가가지는 못했네요.

이번에도 마음에 걸려 부모님께 혼자 거주하시는 이웃 할머니 이야기를 여쭤보았습니다. 그자 뜻밖에도 교정공무원분들의 선행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정공무원들이 매년 새해를 앞두고 연말이면 독거노인이나 요보호아동시설, 사회복지시설을 찾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모님은 우연히 뉴스 기사를 접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이웃 할머니는 수혜 대상이 아니었지만, 교정공무원분들이 소외계층을 찾아간다는 말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챙긴다는 것이 생각하기는 쉬워도 막상 실천하기는 어려운데, 교정공무원 분들이 발 벗고 나서 이웃사랑을 보여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웃들에게 온기를 전해 주셔서 매년 연말이,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가 더욱 따뜻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저도 교정공무원분들을 본받아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외로운 분들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



## 교정 날말퀴즈

월간 <교정> 이번 호에서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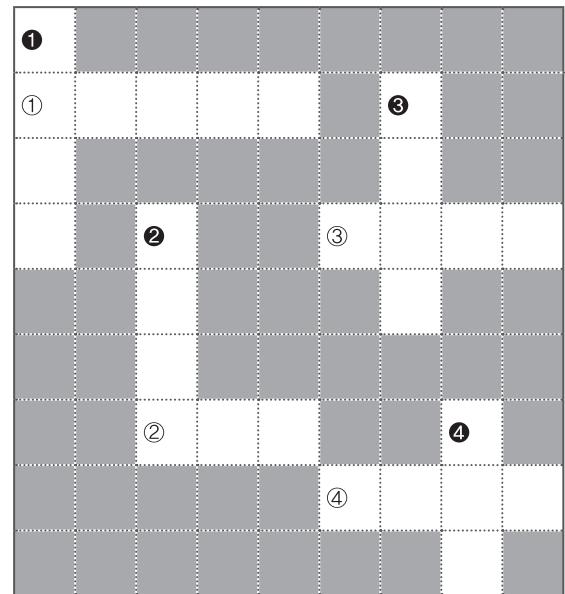
### 가로열쇠

① 지역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로, 지역에 1,500명 수용 규모의 교정시설이 건립될 경우 최소 600명의 이 효과가 나타난다. 이것은 청년을 비롯한 경제활동인구를 지역에 불러들인다.

② 군산교도소가 개최한 이 콘서트는 수용자 미성년 자녀를 돋기 위해 개최되었다. 콘서트 수익금은 불우 미성년 자녀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

③ 뉴질랜드 제3의 도시인 크라이스트처치와 작은 어촌 마을 카이코우에서 볼 수 있는 해양 동물이다. 몸길이는 최대 20m이며, 몸무게가 수십 톤에 달한다.

④ 혼자 밥 먹는 사람을 뜻하는 혼비비언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생긴 신조어다.



### 세로열쇠

① 공자의 제자이며 손자인 증자의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하루에 세 번 자신을 돌아본다는 뜻이다. 스스로 경각하지 않으면 언제든 허물어질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한다.

②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는 고사성어다. 1960년대 중국 문화대혁명 때 마오쩌둥이 처음 이 말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③ 범죄 혐의와 소추 조건이 충분한데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수사 단계에서 이를 확대하여 미결수용자 비율을 낮추면 과밀수용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

④ 발달심리학 용어에서 나온 말로, 갓난아이가 낯선 사람을 대하기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뜻한다.



### ★ 정답 보내실 곳 ★

독자 엽서에 정답을 적어 보내 주시거나, 상단 QR코드를 통해 참여 페이지에 접속한 후 정답을 적어 응모하시면 됩니다. 아래 E-mail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정답을 적어 보내 주신 분께는 월간 <교정>에서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보내 드립니다.

전화 02-2272-1190 E-mail correct2015@naver.com



# 함께 만들어 가는 월간 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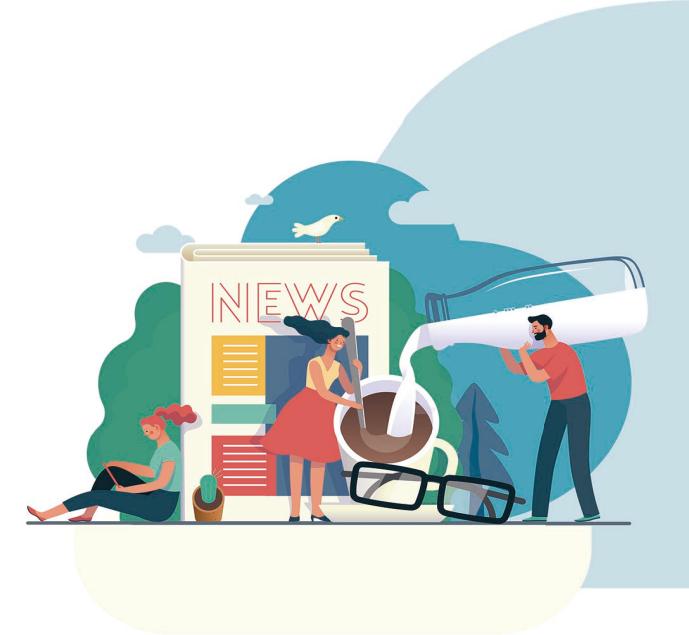
월간 <교정>은 독자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교정>지의 편집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독자의 소리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 읽기 편하고 재미있어요.  
지금처럼 긍정의 메시지가 가득한 <교정>을 만들어 주세요.  
류일열 님(충주구치소 교정관)

대한민국 교정의 역사가 무려 74년이 되었습니다. 고위직 출신  
이 아닌 중간 계급이나 말단 계급으로 퇴직하신 분들의 소중한  
조언과 경험담을 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상현 님(정읍교도소 교사)

교정공무원 중에서 무예, 외국어, 악기 등 여러 각 분야의 숨은  
고수들을 찾아가서 취재하는 '교정, 고수를 찾아서'라는 코너를  
신설하면 어떨까요? 월간 <교정>이 더 흥미롭고 다양해질 것  
같습니다.  
임태규 님(서울구치소 교도)



## 지난 호 퀴즈 정답

|    |   |   |   |    |    |    |   |    |
|----|---|---|---|----|----|----|---|----|
| ①노 | 벨 | 평 | 화 | 상  | ①불 |    |   | ②유 |
|    |   |   |   |    |    | ②세 | 한 | 도  |
|    |   |   |   |    |    |    | 대 |    |
| ③전 | 국 | 기 | 능 | 경  | 기  | 대  | 회 |    |
|    |   |   |   | ③아 |    |    |   |    |
|    |   |   | 이 |    |    |    |   | ④루 |
| ④그 | 라 | 우 | 스 | 마  | 운  | 틴  |   |    |



류일열 님(충주구치소 교정관)  
박혜영 님(서울지방교정청 교감)  
안상현 님(정읍교도소 교사)  
안성호 님(서울구치소 교사)  
석봉균 님(서울구치소 교도)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マイホーム포털 : www.myhome.go.kr  
주거급여 자가진단하세요!

##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주거지원비를 신청하세요

전월세임대료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아래 금액 이하인 가구  
(부양의무자 소득 · 재산 유무와 상관없음)

|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소득인정액<br>(만원/월) | 75.1 | 127.8 | 165.4 | 202.9 | 240.5 | 278.1 |

**신청인**

주거급여 수급권자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신청장소**

①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공인인증서 필요

[제출서류] ※재산조사 과정 등에서 추가 요청할 수 있음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소득 · 재산신고서  
③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④ 임대차(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확인서 ⑤ 통장사본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지원내용**

임차가구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자가가구 :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 지원  
※ 장애인 · 고령자 가구 수선비용은 상한액 외 추가지원 가능

| 가구수         | 임차가구            |                 |              |      | 자가가구              |     |     |       |
|-------------|-----------------|-----------------|--------------|------|-------------------|-----|-----|-------|
|             | 지원상한액(만원/월)     |                 |              |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1급지<br>(서울) | 2급지<br>(경기, 인천) | 3급지<br>(광역시·세종) | 4급지<br>(그 외) |      |                   |     |     |       |
| 1인          | 23.3            | 20.1            | 16.3         | 14.7 | 지원<br>상한액<br>(만원) | 378 | 702 | 1,026 |
| 2인          | 26.7            | 22.6            | 17.8         | 16.1 |                   |     |     |       |
| 3인          | 31.6            | 27.2            | 21.3         | 19.4 |                   |     |     |       |
| 4인          | 36.5            | 31.7            | 24.7         | 22.0 |                   |     |     |       |
| 5인          | 37.7            | 32.9            | 25.8         | 22.9 |                   |     |     |       |
| 6인          | 44.1            | 38.9            | 29.6         | 26.7 |                   |     |     |       |

**지급일**

임차가구 :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  
자가가구 :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수선

교정 · 66

국토교통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월간 **교정**과 교정인의 콜라보!

# 2020년에도 따뜻하게 함께합니다

새해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콘텐츠에 참여해주세요.

선정된 분들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이벤트와 소정의 상품을 제공합니다.



소원을  
말해봐

월간 <교정>이 베켓리스트를 실현시켜준다!

무엇이든 어떤 것이라 누구와 함께하든 OK!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간단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교정이  
쓴다!

우리 아이 학급에 통크게 간식쓰기!

상상해본 적 있나요? 월간 <교정>이 실행시켜드립니다.  
교정인과 자녀의 멋진 추억 만들기에 힘을 보태드릴게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경제, 심리, 육아 고민 등 분야 막론 궁금한 게 있다면?

어디서도 답을 찾기 어려웠던 고민 이젠 끝!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월간 <교정>이 따뜻하게 상담해드립니다.

## 신청 방법



간단한 사연을 적어 월간 <교정> 엽서 또는  
이메일(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을 보내주세요.  
응모 콘텐츠 제목과 성함, 소속, 연락처, 원하는 이벤트 내용을  
짧게 적어 전송하면 끝! 선정된 분께는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 응모 바로가기

\* 신청 기한 없이 수시로 응모받습니다.  
\* 큐알코드를 확인하면 바로 응모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